

문대통령 “최소잔여형 주사기, K-방역 우수성 또 한번 보여줘”

‘제2의 진단키트’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생산 중소기업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사용될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와 관련,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번 보여주세요”고 평가했다.

감히 도전해 성공한 업체로, 세계 20여개국에서 구매 요청을 받고 있다. 이날 방문은 세계 각국에 LDS 백신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국내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고, 나아가 수출을 통해 위기 극복 노력을 하는 혁신 중소기업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최만식기자

서울시, 시민 품으로 돌아온 6개 고가하부 어떻게 즐기지?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다양한 기반시설 중 고가차도의 새로운 변신에 관심을 가지고 도심 속 이용이 저조한 고가하부 공간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해 생활SOC모델을 확립하고자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주변 도시구조와의 연계, 시민을 위한 생활SOC로서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공간 등 도시쉼터로 다시 태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박히지 않은 건축가들의 다양한 실험을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 익숙함, 활랑함, 지체분함으로 남아 있던 고가하부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야외 휴게, 문화, 놀이, 체육의 개방형 공간’ 동대문구 이문 고가, ‘생활체육 중심 시민 복합문화공간’ 성북구 종암사거리 고가, ‘휴식을 주제로 하는 열린 시민 공간’ 용산구 한남1고가, ‘스마트도서관 중심의 시민 복합문화 공간’ 금천구 금천고가 등 5개의 고가하부 공공공간이 조성됐고 노원구 노원역 고가 ‘공공시설물 디자인 및 노후 고가하부 경관 개선’의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연내 완료 예정에 있다.

또한, 3월 중 다양한 콘텐츠를 온라인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홍 부총리 “2분기 연속 분배악화 상황 엄중 인식...추경 마련에 속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2분기 연속 분배가 악화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피해 계층의 ‘두텁고 넓은 지원’을 위한 추경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중·계층에 대한 피해지원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한편, 위기 이후 양극화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포용적 회복’을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광수기자

코로나 방역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인 ‘개인안심번호’를 기재하게 된다.

우에는 수기명부에 기존처럼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개인안심번호는 ‘정부-시민사회-민간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

시민들에게 새롭게 재탄생된 6개 고가하부 공공공간이 순차적으로 성공적인 개관을 함에 따라 시설을 신속하게 소개하고자 기획 및 설계과정, 조성 및 운영 성과 등 지난 5년간 추진된 사업을 기록·정리해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지하3층 갤러리에서 2021년 2월 16일부터 2021년 4월 25일까지 두 달 간의 전시를 시작했다.



정동희기자

Advertisement for 'Natural Food From Yeong Yang To You' featuring various fruits and vegetables, with text in Korean and English.

이준형시의원,사회연대경제 플랫폼으로 연대와협력의 기반만들자

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의 지난 2월 4일 진행됐던 이로운넷과의 인터뷰 기사가 2월 17일에 보도됐으며 본 내용은 이로운넷과 진행했던 인터뷰 기사 내용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린다.

서울시는 최근 10여 년간 행정 곳곳에 사회적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서울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선거를 앞두고 새 시장이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로운넷’은 이준형 서울시의원을 만나 서울의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신입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나아갈 방향을 들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생태계 조성, 판로개척, 시민 일상으로 들어가는 성격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추진됐다면, 이제는 상생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준형 서울시의회 시의원은 신입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서울의 사회적경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 전국 사회적경제조직 연대 플랫폼 구축 및 주도 서울시 사회적경제 행정의 통합적 운영 서울 기초단체 중간지원조직 광역단위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회연대경제의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경제조직이 전국적으로 뭉쳐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경제가 주로 마을 단위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플랫폼을 통해 더욱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구축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공공조달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관에서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또 그는 “현재 중앙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담당 부처가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관련 부서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간지원조직을 각 구에서 운영하는 대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각 구의 중간지원조직을 준 광역 단위로 묶어서 시 예산과 기초예산을 잘 혼합해 관리하는 것도 중간지원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고 제안했다.

다음은 이준형 서울시의회 시의원과의 일문일답. Q. 지난 10년간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서울시는 2012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을 위해 개별기업이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며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20년 5543개로 8년간 6.3배 증가했고 일자리와 매출액은 각각 2만 6200명과 2조 8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기구 사회경제연대 태스크포스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했다.

이때 만난 에티오피아 사회적경제 관계자에게 “짧은 시간동안 어떻게 그렇게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보통 사회적경제는 긴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며 차근차근 성장한다면,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관이 주도한 것이어서 단기간 빠르게 성장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처럼 민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한 방식이 아니다. 이는 장단점이 있다.

관 주도 방식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대됐고 양적,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이제는 민이 자생력을 가질 만큼 성장했다.

민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경제 현장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관이 끌고 가는 대로 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

Q. 앞서 언급했듯 그동안 국내 사회적경제는 관 위주로 성장해왔다.

기업, 시민 등 민간 중심으로 전환 전략은? 서울시는 민간협력의 형태를 추구하며 관의 지원을 바탕으로 민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아직은 관에서 많은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2.0 정책 이후, 민간 중심의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만 머물러서 아니라 소상공인, 생활상권 등 지역중심의 타 사업과 협업이 필요하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해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 전환’ 사업이 좋은 모델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민생사업이면서 지역주민의 생활상권을 기반으로 협력과 상생의 사회적경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Q. 10년 동안 서울시 사회적경제 발전 성과는? 서울시는 201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거버넌스 기관인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 제품·서비스 구매 규모를 1690억원까지 확대했다.

빈집과 노후주택 등을 활용해 청년,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겐 시세의 80%이하로 공급하는 사회주택도 있다.

또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아시아 최초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사회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사례도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과거 영국의 협동조합 사무총장을 만났을 때 “100년의 역사 동안 협동조합이 성장해 왔는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물은 적 있다.

그는 “성과는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조합원들이 믿고 회비를 납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회비를 가지고 여전히 사회 문제에 저항해 싸우고 있는 중이다”고 대답했다.

그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장 중요한 성과를 꼽는다면 인식 변화다.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되는 것, 함께 사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민간이 같이 한다는 것이 큰 성과다.

Q. 향후 서울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신입 서울시장은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까. 서울시 수장이 바뀌더라도 사회적경제 분야의 연속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적경제가 창출하는 가치를 지표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시민의 주거·교육·돌봄 등 여러 생활문제에 대해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

시민 중심의 자조 기반 확충과 가치소비 및 윤리적 소비자 층의 확대를 위해 시민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사회투자기금 투

융자 확대, 사회적경제 공간 확충 등 생태계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추진이 확대돼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로컬 중심 사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 내 문제해결을 통한 사회적경제 경험은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지역중심 사회적경제 사업들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가 민간중심으로 발전해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정책들을 실현해야 한다.

Q. 서울 각 자치구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자치구별 사회적경제조직의 협업상황은? 이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구청장의 관점과 생각, 지침이 중요하다.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이 움직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광역센터를 만들고 해당 센터에 시가 관여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다.

전문성을 위해 해마다 교육 진행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

Q. 국내 사회적경제는 수도권 위주의 쏠림 성장을 해왔다.

서울과 지역의 균형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은 사회적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 전 군산에서 지역의 젊은이들과 대화 할 기회가 있었다.

그중 한 청년이 “서울 등 대도시를 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유를 물으니 “자신의 형이 경기도에서 5년만에 1억원을 모았다고 하는데, 같은 5년간 자신은 오히려 2000만원의 빚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울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다.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둘째는 각 지역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도전할 수 있는 공간이나 교육, 배우고 싶은 프로그램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이 국내 사회적경제 정책의 선봉에 서있는 만큼, 기존의 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사업에 도전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에 도전하는 지자체들이 단계를 거쳐 가면서 겪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서울시가 미리 경험하고 제시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경영 서울시의원, ‘반포종합사회복지관 키움센터 설치 위한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은 2월 17일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반포권 초등돌봄 체계 강화를 위한 키움센터 설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시설 점검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반포복지관 종사자들과 서초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반포 지역주민들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초등돌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복지관 내 초등키움센터를 설치하고자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성 등을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반포복지관의 경우, 초등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 기존 방과후 돌봄교실 경쟁률이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매달 27만원의 이용료가 발생하고 있다.

향후 초등키움센터가 설치되면 절반 이상의 이용료 절감과 함께 이용 가능 인원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아이들이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전망이다.

김경영 의원은 “서초구는 실제 초등돌봄 수요에 비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상 초등학교 구에 키움센터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며 “반포복지관에 키움센터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안심하고 양질의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에 반포복지관 조미진 관장은 “현재 어린이집과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이용 가정을 고려해 최대 최소 100여 가정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는 기관 활성화에도 유기적으로 도움이 되어 향후 지역사회복지의 거점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영 의원은 반포복지관 시설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반포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서초구민들의 이용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시의원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영어전담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주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국가광역단체로 해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인 2017년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성명서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나”고 질타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과정 국장은 “영어회화전담강사 경력을 반영하기 위해 1차 서류, 2차 실기시험 실현

전형 비율을 현재 3:7에서 4:6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경력에 대한 점수도 6점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서울은 5:5, 강원도는 6:4로 채용 평가비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당학교 근무경력을 다른 점수보다 명확하게 구분해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다”며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는 노동인권 감수성이 크게 부족한 결과”고 개탄했다.

한편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기존 전통적 문법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벗어난 회화 중심의 영어수업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2020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539명이 재직하고 있다.

최정근/기자

http://www.dailyculture.kr/  facebook.com/wawa105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부회장 박유석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치 부:내선 (112) 문 화 부 :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 가50146 사 회 부 :내선 (113) 부 동 산 부 :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 :내선 (114) 오피니언부 :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 :내선 (11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숲 하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속 조지훈과 주스미마을

길 절과 관아, 유서깊은 하구에서 유서깊은 영양, 영양, 영양

빛 별이 쏟아지는 밤, 영양, 영양, 영양

맛 사계절의 맛, 영양, 영양, 영양

심 자연과 벗삼아... 영양, 영양,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뵙수록 매력이 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축복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살마을, 감천마을, 지강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활박물관, 분계수석(1)생활전시관

서울시, 문화예술정책 '포스트코로나' 발맞춰 변화...올해 6대 사업 공개

서울문화재단이 포스트코로나 시대 변화에 발맞춰 한 해 역점을 두고 전개할 6대 문화예술 주요 정책사업을 발표했다.

총 1,079억원을 투자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고사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 생태계와 사실상 멈춰버린 시민들의 문화활동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포맷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업기획부터 지원내용, 축제 개최방식 등에 이르는 정책 전반을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설계했다.

우선, 대면활동의 불확실성을 반영해 그동안 작품, 전시 등 결과물 중심의 지원을 창작활동 과정과 기반 중심으로 전환한다.

창작 구상과 준비를 돕는 '리:서치'는 지원금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 300명에게 지원한다.

공간 임차료 지원도 기존 작업실, 연습실, 복합문화공간 등 공간의 구분 없이 최대 1,000만원을 실비 지원한다.

서울시의 모든 예술지원사업을 한눈에 보고 신청부터 보조금 교부 이후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사이트 '서울예술지원시스템'도 새롭게 구축, 22일부터 가동한다.

서울연극센터 등 서울문화재단이 보유한 장르별 창작공간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인플루언서가 멘토로 참여해 예술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시작한다.

유망한 신진 예술가들을 선발해 작품 준비부터 실제 작품을 만들어 내기까지 약 1년여에 걸쳐 긴 호흡으로 전문적인 육성에 나선다.

서울의 대표 축제인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코로나 시국에 맞는 새로운 방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광장 같은 대형 공공공간에서 다수가 모여 개최하던 방식 대신 서울 전역으로 분산해 소규모로 열고 축제 시기도 각종 행사가 집중되는 10월 대신 8월 말~9월 초로 앞당긴다.

대학로도 동숭아트센터가 6월 말 예정인 공간인 '예술청'으로 다시 태어면서 새 시대를 연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6대 문화예술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예술가와 시민들에게 예술로 따뜻한 힘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6대 주요 정책사업은 위드 코로나·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창작 지원 예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 도입 과정 중심 예술가 육성 사업 청소년부터 전문가까지 맞춤형 융복합창·제작사업 '서울거리예술축제' 새로운 모델로 전환 대학로에 예술인 참여형 거버넌스 공간 '예술청' 개관이다.

첫째, 코로나19로 내·외부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창작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3월8일부터 총 19.6억원 규모의 '예술기반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창작준비지원, 임차료 지원 등을 통해 창작구상~준비~진행 전 과정을 지원한다.

창작 구상과 준비를 돕는 '리:서치'는 300명에게 300만원의 시상금을 지원한다.

작업실, 연습실, 복합문화공간 등으로 구분했던 공간지원은 '창작예술공간지원'으로 통합해 평균 4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

기록·연구·매개·실연·비평 등을 지원하는 '우수예술작품기록' '예술전문서적발간지원' '예술인연구모임지원'은 모두 1,000만원씩 지원한다.

재단은 "예술가 입장에서 지원방식을 단순하게 설계했다.

동시에, 장르별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제척사항에 대한 확인을 강화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공연장 내 객석 거리두기를 위해 발생하는 공연예술계의 수입 감소를 보완해주는 '포스퀘 두 드림 사이 채움' 사업도 26일 시작한다.

포르쉐코리아의 사회공헌 캠페인

으로 포르쉐코리아가 총 5억원을 기부했다.

소규모 공연예술 단체와 제작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35개 팀 내외를 선정해 각각 5백만원씩 지원한다.

둘째, 서울문화재단은 매년 130여억원 규모로 계속해오고 있는 예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을 받는 예술가도 편리하게 신청·정산할 수 있도록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22일 오전 10시 시스템을 오픈하며 3월8일 시작하는 '예술기반지원사업' 공모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현재 예술인들은 서울시의 지원사업을 신청·정산할 때 'e나라도움'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지원사업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재단은 작년 5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이후 설문조사, 자문회의, 테스트 등 11차례에 걸쳐 현장 예술가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최적화된 플랫폼을 구축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재구성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

서울문화재단은 향후 '서울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예술인 커뮤니티, 아카이브, 대관, 예매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자치구 내 지역문화재단, 장기적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광역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활용되도록 확대를 추진한다.

셋째, 새롭게 선보일 '과정' 중심의 예술가 육성사업은 작품이나 전시 결과물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술가의 지속적인 '개발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간접지원 방식을 선보인다.

문래예술공장, 서울연극센터, 서울무용센터 등 창작공간에서 총 6개

장르 10여 개 팀을 선발하고 작품 준비 리서치~연습·리허설~작품 발표 등 전 과정을 긴 호흡으로 지원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인플루언서로 구성된 '파트너그룹'이 전 과정 참여한다.

재단은 장르별로 특화된 창작공간의 장점을 살려 예술가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작품 발표 등 결과 중심이 아니라 예술가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육성' 방식으로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목표다.

서울문화재단은 작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예술창작환경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 지원 패러다임을 지원주체 중심에서 예술인 중심으로 개편한 바 있다.

또, 지난 1년 동안 라운드 테이블,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예술가들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 "단기적인 목표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육성으로 방향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넷째, AI 등 디지털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융복합 창작·제작'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예술계의 변화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 K아트의 미래 주인공을 키운다는 목표. 서울문화재단의 융합예술 TF팀을 중심으로 청년예술청, 서울예술교육센터, 잠실창작스튜디오 등 창작공간에서 세분화된 대상자별 프로그램을 기획해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총 116명이 참여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인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지난해 런칭한 국내의 미디어아트 10년의 하이라이프 전시와 총 7개의 관련 기관들이 참여한 플랫폼인 '언폴드 엑스'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을 살려 기술에 기반을 둔 창·제작 전문가를 키워내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권역별 예술교육시설인 양천구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용산구 '서울예술교육센터'를 조성·운영 중이다.

예술교육이 학교 안 교실이 아닌

일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예술이 아닌 예술가와 시민이 서로 배우는 '공동창작' 공간으로 만든다는 목표다.

다섯째, '하이서울페스티벌'로 시작해 서울시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서울거리예술축제'는 단절과 고립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시대를 위로하기 위해 새로운 축제 모델로 전환한다.

축제가 갖는 현상성은 유지하되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기존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같은 대형 공공공간에서 벗어나 권역별로 분산해 개최한다.

축제 시기도 각종 행사가 집중되는 10월을 피해 8월 말~9월 초로 앞당기고 개최 기간은 늘린다.

축제가 권역별로 열리는 만큼 총감독 체제 대신 권역별로 다수의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공동기획 제작방식을 새롭게 도입한다.

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뿐 아니라 영상으로 예술가와 관객이 실시간 소통하는 체험형 거리예술 콘텐츠도 개발한다.

서울시는 코로나로 인해 택배기사와 대리운전을 하며 삶의 위기에 내몰린 예술가·기획자·현장스태프 등 문화산업 종사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획과정 지원, 계약 등 행정절차를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축제 작품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아카이빙과 온라인 배포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단체를 홍보해 제한된 장르로 인식돼 왔던 거리예술과 서커스의 대중화에 힘을 쏟는다는 목표다.

여섯째, 예술과 민주주의의 상징공간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과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축됐던 '대학로'는 올해 예술가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대학로의 역사적인 공간인 동숭아트센터는 오는 6월 말 예술가들이 주체적으로 운영에 참여하는 협치형 공간인 '예술청'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술청' 지하에는 '22년 상반기에

240석 규모의 중소 규모 공연장 '블랙박스 공공'이 문을 연다.

'예술청' 인근에 있는 '서울연극센터'는 현재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중으로 '22년 6월 재개관한다.

대학로 내 연극생태계와 공존하며 연극인과 시민 관객이 소통하는 참여민주주의 공간으로 운영된다.

'예술청'은 예술가들을 위한 활동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등으로 조성되며 민·관이 함께하는 협치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공동운영단'에 참여해 예술가 지원사업 등 예술청에서 추진할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청'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시도인 만큼, '18년부터 운영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왔다.

지금까지 총 9천여명의 예술가가 참여했다.

'공동운영단'은 공모를 통해 2인의 예술청장과 10인의 운영위원을 선발했으며 재단 직원들이 함께 참여한다.

서울문화재단은 '블랙박스 공공'을 현장 예술가들과 함께 극장의 미학적·사회적 가치를 세워나가는 과정 중심의 기획·제작극장으로 만들어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2년 간 운영해오고 있는 '공공극장 거버넌스'를 통해 '블랙박스 공공'의 혁신적인 운영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중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예술가들의 생존과 활동의 기반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

이제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외부 환경에 제약받지 않고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와 과정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지난해 시도해본 다양한 경험과 지속적으로 현장에 올리는 시민, 예술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성동구, 코로나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원 긴급지원

올해 70억 중 상반기 40억원 용자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나서

서울 성동구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0억 용자를 지원한다.

구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 지원 역대 최저인 1%의 금리로 적극 지원에 나섰다.

지난 해 구는 구 자금으로 142개소의 중소기업 등에 68억 9천만원을, 은행협력자금에는 13개소 2억 6천만원에 대한 이자 지원을 했다.

올해는 상반기 40억, 하반기 30억의 총 70억 규모로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4년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진행된다.

신청금액은 대상에 따라 상이하 다.상반기 정기 용자 신청기업은 범

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으로 2,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신청 가능한 코로나19 용자는 2,000만원 이내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 지역 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성동구 관내 기업경력 10년 이상, 여성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벤처기업, 사회적기업, 청년기업, 일자리창출인증 기업 등은 우선순위 대상기업이다.

다만, 폐업 업체, 금융기관 대출 불가능 업체,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성동

구청 홈페이지 고시 및 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한 뒤 신한, 우리, 기업, 하나은행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거친 후 신청기일 내 성동구청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 마감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기업이 선정되며 오는 3월 말 용자 실행으로 자금 지급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저금리 용자지원을 통해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 및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관내 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구로구,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 개최

20일 오후 5시부터 유튜브로 송출... 3부에 걸쳐 밴드 공연 실시간 중계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공연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개최한다.

구로구는 "현장 콘서트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즐기며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는 20일 오후 5시부터 3부에 걸쳐 진행되며 구로G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가수 서영주가 소속된 너드커넥션을 비롯해 일렉트로닉 팝 밴드 플랫폼 스테레오, 한국적 가락을 섞은 '조선록'을 들려주는 아시안 체어샷 등 실력 있는 밴드들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구로구는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할 수 있는 비대면 팬미팅 이벤트도 마련한다.

공연에 앞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참여 사전 접수를 받아 오작위 추첨 방식으로 4명을 선정했다.

당첨자는 공연이 끝난 후 원하는 밴드와 영상통화의 기회를 갖는다.

한편 구로구는 지난해 3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

구로구는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로 힘든 주민들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시대에 맞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금천구, CCTV 실시간 관제로 폭력피의자 검거

1월 1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의자 2명 현장검거

금천구는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실시간 CCTV 모니터링으로 지난 10일 흉기소지 폭력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설날 전날인 10일 오후 5시 5분경 독산2동 말미사거리 인근과 밤 11시 28분경 시청4동 독산로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폭력행위를 한 남성 2명이다.

이들은 사건 당일 경찰 상황실의 전파를 숙지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도주경로 추적과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는 앞서 CCTV 관제요원들의 활약으로 지난 1월 1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 용의

자 2명을 검거하는 등 2월 현재 총 4건의 범죄 용의자를 현장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에 금천경찰서는 지난 1월 20일과 28일 U통합운영센터 해당 관제요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최근 폭력범 피의자 검거 등과 관련해 관제요원 4명에게 서울경찰청 감사장과 금천경찰서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구에는 학교주변, 공원, 우범지역 등 719곳에 방법 등 다목적용 CCTV 2,365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에서 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파견된 경찰관 4명, 관제요원 7명이 3조 2교대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

시하며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 U통합운영센터 관제요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자치경찰업무를 맡고 있는 금천경찰서의 신속한 공조체제로 범죄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 도입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 등 금천구 U통합센터의 기능을 한층 더 보강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미성/기자

서울시, 2조1천억 '미래혁신성장펀드' 조성해 501개 기업에 투자했다

올해 5천억원 추가조성해 코로나로 위축 위기 혁신기업 투자 생태계에 동력 확보

서울시가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 '18년 시작한 '미래혁신성장펀드'가 3년 만에 조성규모 2조1천억원을 돌파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재원 투입과 스타트업에 대한 민간의 뜨거운 투자열기를 바탕으로 당초 5년 간 목표치를 172% 규모로 초과한 펀드를 조기에 달성한 것이다.

'미래혁신성장펀드'는 서울의 미래 먹거리인 주요 산업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에 집중투자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이끌기 위한 펀드다.

6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는 지난 '18년 5년 간 총 1조2천억원 규모로 '미래혁신성장' 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4년 차를 맞은 현재까지 서울시 재원 770억 5천만원을 투입, 당초 목표의 172% 수준인 총 2조1천억원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미래혁신성장펀드'는 서울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출자하고 나머지는 정부·민간 모태펀드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펀드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각 펀드별로 전문 운용사가 관리를 맡는다.

서울시는 이렇게 조성한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바이오, 문화콘텐츠, 스마트시티 같은 신성장 산업 분야 혁신기업 501개사가 투자를 받았다고 밝혔다.

'미래혁신성장펀드'가 민간 벤처캐피탈의 투자나 은행으로부터 투자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혁신기업에 과감하게 투자하는 '모험자본'이자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한 '씨앗자본'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것. 서울시는 올해도 6개 분야 총 5,000

억원 규모로 '미래혁신성장펀드'를 추가 조성해 투자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혁신기업 투자 생태계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선협상운용사를 3월 중 조기에 선정해 신속한 투자에 나선다.

우선협상운용사는 펀드를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주체로 그동안 통상 4~8월에 선정했던 것을 대폭 앞당기기로 한 것. 이와 관련해 시는

펀드 조성과 운용을 책임질 투자운용사를 3월10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서울시 정책사업 지원기업에 대한 투자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운용사가 정책 연계방안과 투자 의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2차 대면평가기적 적극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원시설 임주기업 및 정책사업 지원기업 투자검토, 서울시 연계투자 프로그램을 역제안하는 등 운용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서울시와의 정책연계 의지를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이 밖에 펀드 운용전략, 운용팀의 전문성 및 투자·회수실적, 운용사의 안정성, 운용규모의 적정성, 펀드결산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기타 세부 내용은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기간 내에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출자대상은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단, 창업지원펀드의 해외운용사 분야는 지원수요 등을 감안해 별도 안내한다.

시는 특히 모태펀드 등 공공정책자금과 함께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도전적인 혁신기술, 혁신기업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운용사를 선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운용사 모집 단계부터 '혁신창업기업의 성장단계 및 유망산업 분야별 전략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리한다는 취지다.

지원운용사는 공고문에 따라 펀드 분야별로 서울시가 제시한 투자목적 대상 기업에 서울시 출자금의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할 것을 제안해야 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미래혁신성장펀드가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이 코로나로 인한 난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포스트코로나시대 신성장 동력이 될 서울의 스타트업들이 국내외에서 더욱 주목받을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산업분야별 전략적인 투자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강화군, 가축분뇨 퇴·액비 부속도 검사 무상 제공

강화군이 축산농가의 퇴비부속도 의무화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퇴·액비 부속도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 분뇨를 살포할 때 생기는 악취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퇴비를 썩히워 익힌 정도인 부속도 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다.

검사를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전체 퇴·액비를 대표할 수 있도록 5~6곳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 후, 깨끗한 밀봉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로 검사의뢰하면 된다.

한편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

씩 퇴비 부속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와 관리대상 등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지에 살포할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속 중기 이상만을 뿌려야 한다.

부속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는 부속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부속도 기준을 준수한 퇴비가 농경지에 반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인천 대표 관광지 월미권역 경관개선 사업으로 새로운 도약 시동

경관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인천 중구는 지난 17일 서별관 회의실에서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을 위한 경관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홍인성 중구청장 및 최찬용 중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사업관련 부서장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수칙에 따른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했다.

월미권역 경관기본계획에 근거한 체계적인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3월 본격 착수 예정인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사항을 최종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구는 2019년 10월 월미바다열차 개통을 계기로 월미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주·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고 월미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월미도의 경관 잠재력을 기반으로 월미권역의 경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경관개선 시범사업을 선정,

단계적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인천시 경관위원회 경관심의를 통과해 다음달 3월, 1단계 시범사업 착공을 앞두고 있다.

1단계 시범사업 대상지는 월미도 진입부인 산업시설 및 인천항7부두 일원이다.

방문객 시인성 확보를 위한 인천 상륙작전 맥아더길 기념비 및 동상 주변 정비를 통한 열린공간 확보, 노후된 산업단지 담장 및 녹지대 정비, 인천항7부두측 철망펜스 하단 초화식재 및 아트디자인 조성, 조경 시설 조경 재정비를 통한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 및 야간경관 개선 등의 사업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진행 중이다.

다음달 3월 착공, 6월 준공 예정으로 인천항만공사, 대한제분, ㈜한진, 대한제당 등 경관사업 대상지 업체 간 경관협정을 체결해 책임과 신뢰

를 바탕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월미권역 경관 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단계 시범사업 준공과 연계해 하반기에는 월미문화의거리 일원을 대상으로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2단계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가시화된 월미권역 경관의 변화상을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선사해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 관광사업 및 상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월미권역 경관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은 월미권역에 대상으로 자유공원·차이나타운·월미도 간의 조화롭고 연계성 있는 경관 형성을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의 성과가 경관 분야에 실현되어 월미도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적극 반영한 도시경관 이미지가 구축될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소래역사관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지원 사업' 3년 연속 선정

인천시 남동구 소래역사관이 올해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 학에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소래역사관은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이어 3년 연속 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18일 남동구도시관리공단에 따르면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은 전국 박물관들의 상호 협력으로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이는 사업으로 가입기관의 학에 역량 강화 및 각종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지난 2017년 협력망에 가입한 소래역사관은 2019년 소규모 기획 전시 '기록으로 만나는 소래의 옛 모습'을 개최한데 이어 지난해는 전시 관람 만족도 높이기 위한 '스탬프 투어형 관람 활동지'를 제작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가상현실 상설전시 관람'으로 소래역사관의 상설 전시를 가상현실 영상으로 제작해 시간,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을 통해 소래의 옛 모습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

소래역사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관람의 필요



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사업을 구상했다.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소래의 역사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소래역사관은 코로나19 감

염예방을 위해 주기적인 방역소독 실시와 함께 관람인원 제한 및 마스크 착용, 출입 명부 작성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

최만식/기자

기후변화, '2021 미추홀북'으로 함께 읽어요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에서 올해 한해동안 인천시민이 함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2021 미추홀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추홀북 선정 시민투표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기후변화와 공생'을 주제로 관내 도서관, 지역서점 등 22곳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8,651명의 시민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성인 분야의 도서 3권을 선정했다.

어린이 분야 선정도서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로 일상생활 속의 행동들이 환경과 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만화와 함께 설명해 어린이

들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점이 특징이다.

청소년 분야 도서는 기후변화의 원인과 문제점을 쉽게 설명하고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소개하는 '왜 기후변화가 문제일까?'가 선정됐다.

성인 분야 선정도서는 '천 개의 파랑'으로 소외된 인간, 로봇, 동물이 종을 넘어선 연대를 통해 공생의 길로 나아가는 따뜻한 파랑을 그려낸 장편소설이며 한국과학문학상에서 장편대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한편 선정도서는 3월 중 관내 도서관에 배부되어 자료실 및 홍보코너

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선정도서와 연계한 독서토론회, 공연, 북콘서트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인천시민들과 함께해 미추홀북의 의미와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주한석 미추홀도서관장은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미추홀북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서로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종남/기자

부평구,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부평구가 국가 지정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1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부평구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 지정 문화도시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문화도시의 방향과 지침 등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발전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는 지난해 5월 말 문화다음과 계약을 체결해 총 9개월에 걸쳐 용역을 진행했다.

종합발전계획에서는 문화도시 부평의 비전을 '삶의 소리로부터 내 안의 시민성이 자라는 문화도시 부평'으로 정했다.

이어 성숙하고 주체적인 시민들의 사회적 참여로 변화하는 도시 지역의 내발적인 문화력으로 성장하는 도시 부평의 문화적 장소성을 중심으로 문화적 가치가 도시 전반으로 확장되는 도시 문화소비 중심이 아닌 창조적 문화생산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 시민들의 다양한 연대를 통해 지역의 가치가 형성되는 도시들을 문화도시 핵심 방향 및 가치로 삼았다.

구는 앞서 설명한 핵심 방향과 가치를 시민 주도 민관 거버넌스인 '문화두레'를 통해 실현하겠다는 계획이



라고 전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문화도시 부평의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계를 국가 지정 문화도시로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본격 추진기'와 본 사업 이후의 '안정기'로 구분했다.

1단계에서는 문화두레를 본격화하면서 시민 중심의 문화를 활성화하고 2단계에서는 문화도시 공간 발굴 및 거점 구축, 문화도시 연계사업 본격 추진 등 문화생태계 및 문화적 장소 기반을 구축하는 단계로 나뉘었다.

본격 추진기의 마지막인 3단계에서는 창조적 문화산업의 토대를 형성하고 '부평 문화도시'를 선언하는 시기로 정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문화도시 안정기'에서는 부평의 음악도시

브랜드를 강화하고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 문화적 장소 기반 구축, 행·재정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상생협력체계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했다.

부평구는 지난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국비를 포함한 총 190억원의 예산으로 향후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차준택 구정장은 "이번 문화도시 종합발전계획은 국가 지정 문화도시 추진의 성과를 부평의 도시문화 전반으로 확장하기 위한 바탕"이라며 "문화도시 부평의 지속성을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증평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위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증평균이 거리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올해도 이어간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불법 명함형 전단지에 대응하기 위해 총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해 수거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기준은 명함형 광고물 1매당 20원이며 개인당 월 최대 30만원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10만 개 이상의 불법 명함형 광고물을 수거 했으며 저소득층 및 노인 일자리 창출과 생계비 지원에도 기여했다.

상반기에 송산리 주요도로 및 교차로에 설치된 가로등 약 50개소에 불법 전단지 부착 방지판도 설치한다.

2019년에 군정사거리 및 교동사거리 일대에 설치해 불법 전단지를 사전예방을 통해 미관 개선에 효과를 높인 바 있다.

또한, 군은 불법 및 안전 위협 고장

광고물 부동산 분양 현수막 등 대량 게시 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도로변 미고정 설치 불법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의 청소년 유해 광고물 등에 대대적인 정비활동도 정기적으로 펼쳐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유지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거창군, 동절기 불법 산림훼손 특별단속 실시

거창군은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단속반을 통해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100대 명산에 속하는 덕유산이 있다.

또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동호숲, 갈계숲, 수승대, 심소정숲, 용산숲, 기백산이 포함되며 백두대간 보호구역은 산림청에서 고시한 거창군 북상면, 고제면 일원 145필지가 해당한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관내 산림보호구역 내 야영, 취사 행위 등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로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인도 거창군은 “매년 동절기면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단속해 산림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거창군의 산림을 보호하고자,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관내 모든 산림 내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영훈기자



경기도 내 법위반 기업, 지원사업 제한 받는다

경기도의회 이원웅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들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안’이 2월 18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경기도 내 기업이 각종 법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 기업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통해 기업지원사업의 공정성 및 기업의 법적·윤리

적 책임 등을 제고하려는 목적의 제정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단순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기업문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안전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사업은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공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조례에 따른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사전 연구 등을 포함한 준비과정이 전제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한 지원과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조례 의결 소감을 밝혔다.

최정근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봄철 차량 공회전 행위 집중단속 실시

고양시 일산서구는 자동차의 과도한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연료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오는 22일부터 5월 말까지 자동차 공회전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산서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주차장 등 총 24곳으로 특히 황사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생이 잦은 봄철에 미세먼지 농도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차량 공회전 행위를 단속해 시민들이 쾌적한 대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속 기간 동안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우선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도를 초과하거나 영상 5도 미만인 경우엔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 시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차량 공회전을 줄이면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량이 줄어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낭비되는 연료 또한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근기자

광주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

광주시가 교통안전을 위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로변 대형사고 및 시민 불편사항을 유발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고 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물류단지 주변, 주택단지 인근 불법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현수막 게시 및 구간별 집중 계도 실시 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도로 등 차고지 외 지역에 무단으로 밤샘 주차해 통행불편을 야기하고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영업용 차량이다.

단속방법은 영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한 차량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는 영업용 화물·버스 차량의 밤샘주차 법규 위반 근절을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신고제 운영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해 1시간 이상 간격을 둔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해 첨부하고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눌러 주소가 맞는 지 확인한 뒤 제출하면 된다.

신동현 시장은 “이번 계도기간의

홍보와 특별단속을 통해 물류단지 주변과 주요 도로 주택가 인근 지역에 불법 밤샘 주차를 뿌리 뽑아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전북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위해 식품 점검

19일 전라북도 도민안전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개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와 위해 식품 제조·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3월 19일까지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내 학교 주변 부정·불량 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청소년 유해요인을 단속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한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민간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형식적인 단속을 피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식품 제조·판매 업소에 대한 주요 단속 내용은 보관관리의 적정성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및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을 식품 제조에 사용 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제공 및 판매 행위, 노래방·PC방·점점방 등에서 청소년 출입불가시간 위반 행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등이다.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당국은 청소년 유해업소들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돼 있어 집중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단속기간 내 청소년보호 캠페인도 실시한다.

민간에서 위촉된 생활안전지킴이 30명과 함께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지역 상가 일대에서 홍보 전단지

6,000장을 배부하는 등 현장에서 청소년 보호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 사회재난과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겠다”며 “우리 모두가 학부모라는 생각으로 주변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될 시, 전북도 민생특별사법 경찰팀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사용이 편리한 「나주사랑카드」 상품권 출시

▶ 발행시기 : '20.9.1.부터

▶ 발행종류 : 충전식카드

▶ 카드신청 - 한국조폐공사 앱(chak) - 관내 농협 방문 ※ 스마트폰, 신분증, 계좌번호

▶ 충전한도 : 월 70만원

▶ 사용처 :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

▶ 좋은점 - 사용자에게 10% 할인 - 직장인 소득공제 30% - 휴대폰에서 충전가능 등

▶ 문의처 : 일자리경제과 ☎ 339-8822

용인시 3자녀 이상 생활안정자금 현장 접수 진행

22일부터 26일까지 가구당 10만원 지급

용인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3자녀 이상 가구에 지급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의 현장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0만원을 용인아이페이로 지급하며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부모와 세대를 같이하는 3자녀 이상 가구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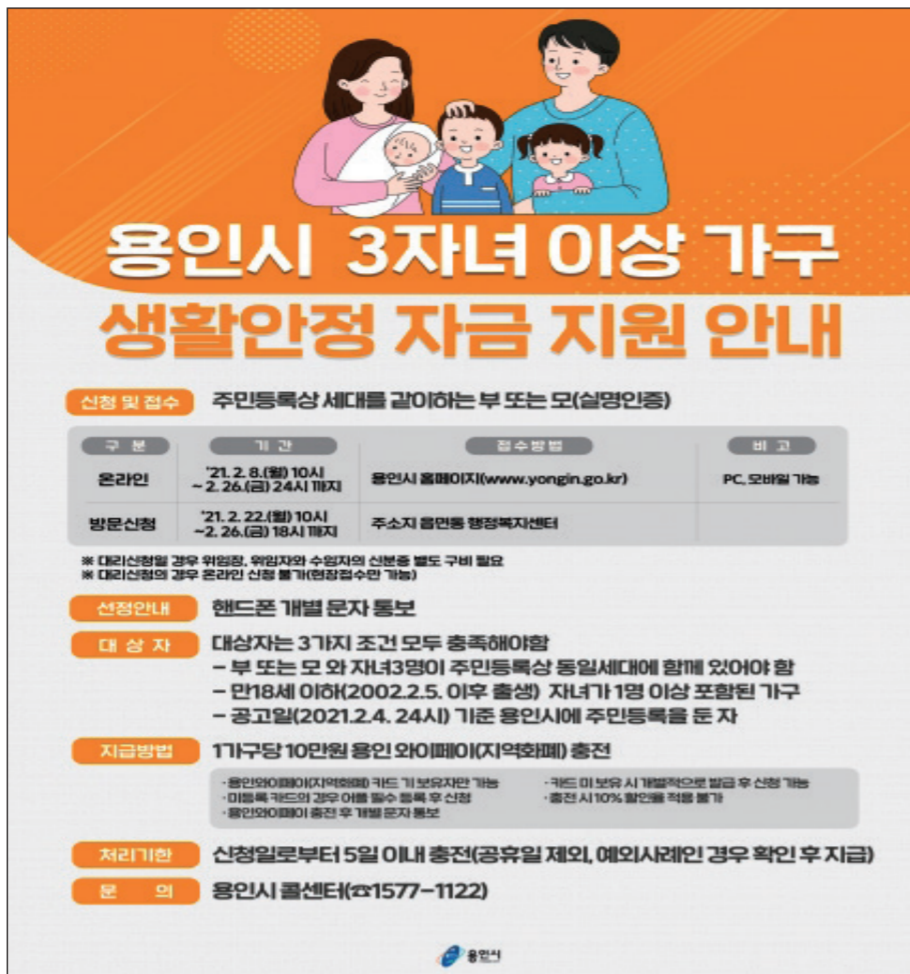
시가 지난 8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접수를 통해서도 전체 대상자 중 51.4%인 6,484가구가 신청했다.

현장 접수는 주소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할 수 있고 온라인 접수도 해당 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는 접수 후 5일 이내에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조금이나마 지원하고자 생활안정자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공공 돌봄 확대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용인시 3자녀 이상 가구 생활안정 자금 지원 안내

신청 및 접수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실명인증)

구분	기간	접수방법	비고
온라인	21.2.8(월) 10시 ~ 2.26(금) 24시 까지	용인시 홈페이지(www.yongin.go.kr)	PC, 모바일 가능
방문신청	21.2.22(월) 10시 ~ 2.26(금) 18시 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안내 핸드폰 개별 문자 발송

대상자 대상자는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부 또는 모와 재:43명(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함께 있어야함
 - 만18세 이하(2002.2.5. 이후 출생)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 공고일(2021.2.4. 24시)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지급방법 1가구당 10만원 용인아이페이(지역화폐) 충전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충전(공휴일 제외, 예외사례인 경우 확인 후 지급)

문의 용인시 콜센터(☎1577-1122)

성남시 '쉐어하우스' 1인 가구 청년들 모여 주택 나눠 쓴다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 모집...월 임대료 15만~20만원에 최장 6년 거주

성남시는 무주택 1인 가구 주거 지원책의 하나로 해당 청년들이 한집에 모여 주택을 나눠 쓰는 쉐어하우스를 시범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공유재산인 중원구 성남동 소재 102㎡ 규모 아파트를 공유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오는 3월 16일까지 입주 희망 여성 청년 3명을 모집한다.

'같이 살자 성남시 쉐어하우스 1호'로 명명한 공유주택은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앞·뒤 베란다가 있는 구조다.

입주 청년 3명은 각자 방을 사용하되, 다른 공간들은 함께 나눠 써야 한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 임대료는 화장실이 딸린 방 입주자 20만원, 일반 방 입주자 15만원이다.

아파트 관리비,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별도로 내야 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의 무



주택 1인 가구 여성이다. 이와 함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야 한다. 기간 내 신청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성남시청 6층 복지정책과에 직접 내야 한다. 시는 고시원, 지하방 거주자, 사회초년생 등을 우선순위로 오는 4

월 입주자를 선정한다.입주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성남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1인 가구 여럿이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는 개인의 자율성은 지키면서 정서적 유대를 통해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윤/기자

도내 섬유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지원 봄비...최대 1억5,000만원

도내 소재 섬유 기업 대상, 기업개방형 연구개발 과제 공모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섬유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1 섬유분야 기업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섬유분야 기업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섬유 분야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 기술개발로 사업화를 촉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섬유분야 신제품 개발 등의 단기 연구 과제를 제안하면, 시제품 제작이나 재료 구입 등에 필요한 기술개발사업비를 경기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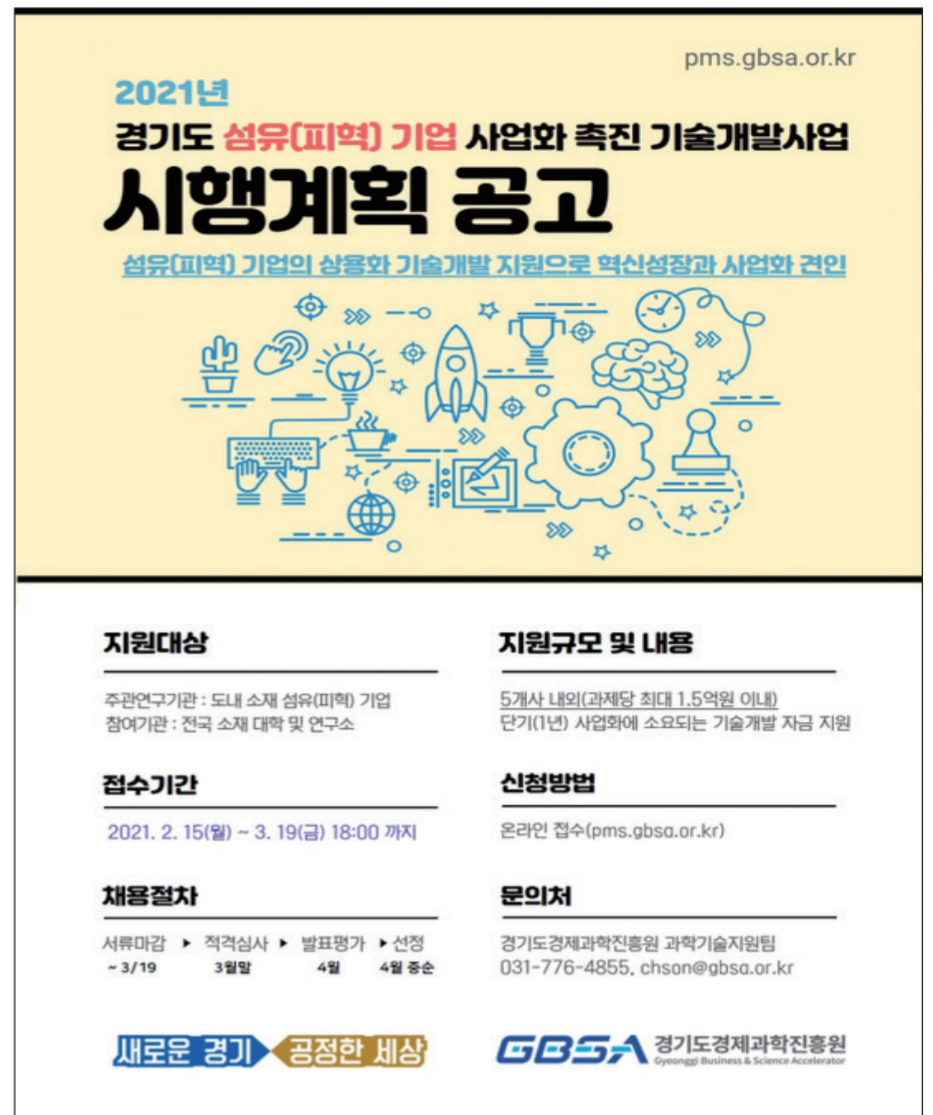
올해는 서류 및 발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총 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1개 과제당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부터 도내 섬유기업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개방형 공모방식으로 모집하고 평가항목 중 사업화 비중을 높여 기술개발과 동시에 상용화가 가능한 유망한 기술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섬유기업이며 전국 소재 대학, 연구기관은 참여기관으로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지원에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달 1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으로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전혀 없다.



2021년 경기도 섬유(피혁) 기업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섬유(피혁) 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혁신성장과 사업화 견인

지원대상 주관연구기관: 도내 소재 섬유(피혁) 기업
 참여기관: 전국 소재 대학 및 연구소

지원규모 및 내용 5개사 내외(과제당 최대 1.5억원 이내)
 단기(1년) 사업화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자금 지원

접수기간 2021. 2. 15(월) ~ 3. 19(금) 18:00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pms.gbsa.or.kr)

채용절차 서류마감 ▶ 적격심사 ▶ 발표평가 ▶ 선정
 - 3/19 3월말 4월 4월 중순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기술지원팀
 031-776-4855, chson@gbsa.or.kr

새로운 경기 ▶ 공정한 세상

GBSA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 관계자는 “자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섬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

을 통해 섬유기업의 혁신성장과 사업화 견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수출의 징검다리. 화성시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해외시장 공략 위해 홍보동영상부터 글로벌 SNS마케팅까지 5개 분야 지원

경기침체로 줄어든 내수시장을 대신해서 해외 수출에 도전하고 싶다면, 화성시 온라인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에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 화성시가 우수한 제품을 가지고 있으나, 수출 전담인력이나 마케팅 콘텐츠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수출인프라 구축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세부 지원 분야는 해외 세일즈 콘텐츠 제작 홍보 동영상 제작 외국어 통번역 해외 키워드 검색광고 글로벌 SNS 마케팅 등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5개 분야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00개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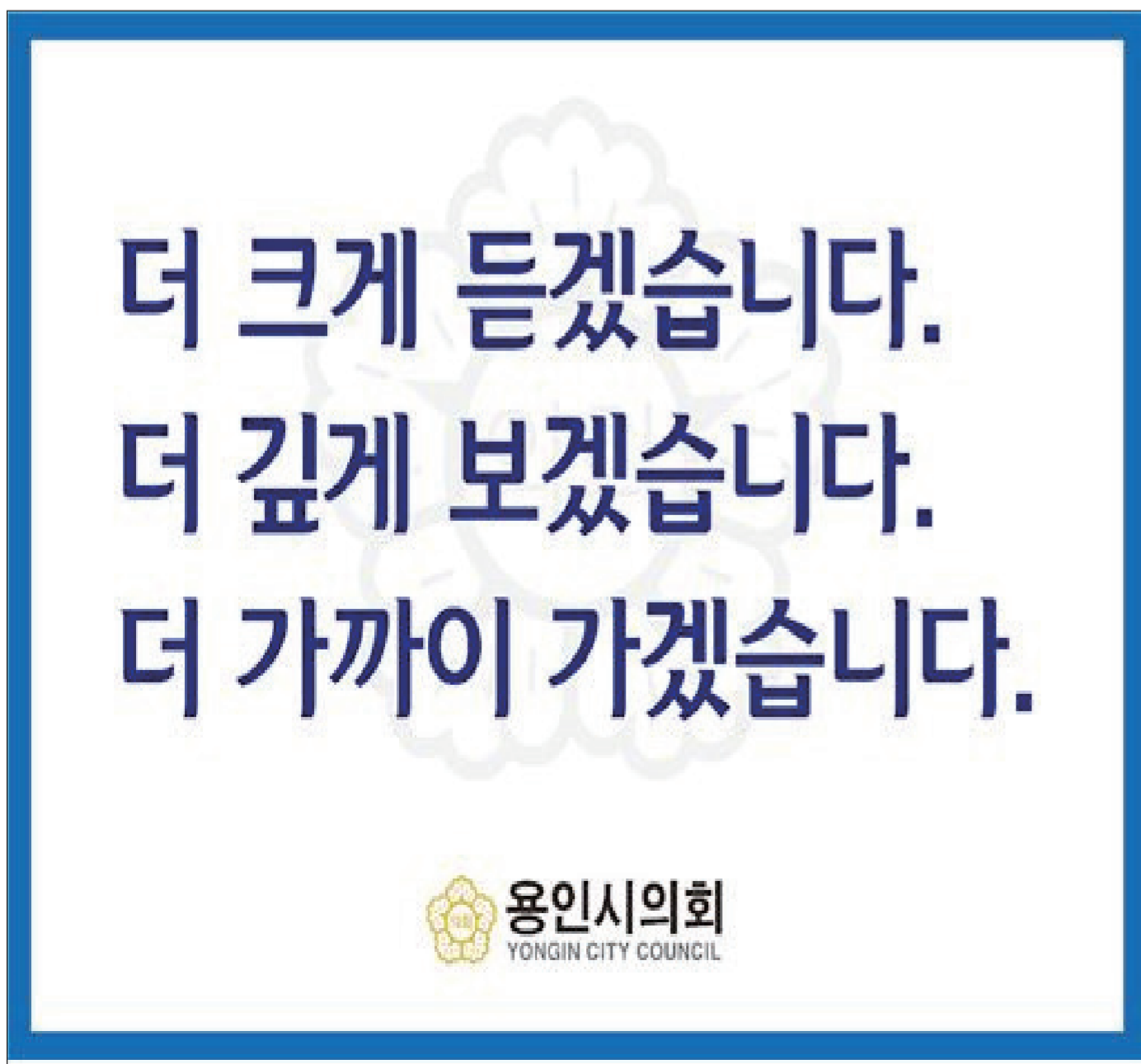
업체당 최대 3개 사업까지, 세부 지원 분야 당 최소 5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진행되며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마지막 날은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김석태 기업지원과장은 “협소한 내수시장에 기대지 않고 전 세계로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든든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관내 우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더 크게 들겠습니다.
더 깊게 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용인시의회
 YONGIN CITY COUNCIL



김포시, 구래동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한 민관 TF팀 구성 및 회의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명품 문화의 거리

김포시는 지난 1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역점사업인 구래동 문화의 거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민관 TF팀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TF팀은 이석범 부시장을 팀장으로 김포시의회 김인수, 박우식 시의원과 관련부서 공무원, 민간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촉장 수여식에서 정하영 김포시장은 “구래동 문화의 거리는 지난 2018년 조성계획 공고 후 이렇게 할 진척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문화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민관 TF팀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TF팀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사업 부서별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설명 내용에 대해 민관 위원들은 문화의 거리 구간별 특색 있는 테마 공간 연출, 적정 수목의 선정, 대상에 맞는 문화의 거리 조성, 시설공



사에 따른 안전 확보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석범 김포시 부시장은 “구래동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이 주민 참여로 만들어 나가게 돼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TF팀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은 사업부서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반영여부를 결정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래동 문화의 거리는 김포시 구

래동 6881-8번지 일원 중심 상업지구에서 구래동 호수공원에 이르는 약 1.4km 구간으로 올해 하반기 기존 수체계 시설 및 녹지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와 지하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후 다양한 문화 콘텐츠 공연 등으로 대한민국 명품 문화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근기자

2021년도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문화의집 제3기 혜음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모집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해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참관 및 시설 모니터링, 프로그램 자문·평가,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 진행하는 제3기 혜음누리 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의 참석,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모니터링, 청소년 행사 운영 기획, 타 지역 청소년 교류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선발된 청소년들에게 위촉장 수여,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우수 위원 표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모집 기간은 2021년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모집대상은 중학교이상, 고등학생, 대학생이다.

위원 선발은 신청서 접수, 면접의 과정을 거쳐 선발되며 면접일은 개별 공지예정이다.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광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활동뿐 아니라 청소년운영위원회

2021 연천군 문화의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혜음누리' 3기 모집

활동내용

- 정기회의(매 월 1회)
- 청소년 프로그램, 장외운영위원회 자체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모집대상

- 관내 중·고교 청소년으로 청소년 운영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가능한 자
- 모집인원: 10명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
- 1차 결과발표: 2021. 03. 09(화)
- 2차 면접일정: 2021. 03. 12(금)
-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상 면접 대체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 양식은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www.ycyc.or.kr)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지원방법: 직접방문(연천군청소년문화의집) 및 이메일 접수(yycy7942@naver.com)

지원의혜

- 관내 중·고교 청소년으로 청소년 운영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가능한 자
- 모집인원: 10명
- 2021년 02월 23일(화)
- 2021년 03월 04일(목)
- 3월 4일 목요일 15시 서울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 031-832-7942

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힘 있는 권리의식을 가지게 해 민주시민으로 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 “이동보조기기 이용자의 희망으로 다가서다”

오산시 보조기기수리센터가 수리시설이 없어 보조기기의 안정적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복지대상자들에게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산시는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 보조기기 이용자에 대한 이동편의 지원을 위해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오산시지회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1월부터 ‘오산시보조기기수리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보조기기 수리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이기에 이용 대상 및 지원 규모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센터장과 수리기사 2명으로 운영 중인 보조기기수리센터는 전동·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실버카 등 이동보조기기의 수리서비스 외에 기기 점검, 대여, 이용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기기 특성상 직접 내방이 어려운 이용자들을 위한 출장 방문 서비스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해에도 부품교체 264건, 무상수리 및 점검 272건, 상담 12건 등 548건의 서



비스를 지원했고 연간 기초·차상위수급자에게는 25만원, 그 밖의 이용자에게는 15만원을 지원해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미정 센터장은 “코로나19로 방

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찾아가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실현하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주기자

광주시, 자전거도로로 시범사업 조성 본격화

광주시가 태전지구에서 광주역까지 자전거도로로 시범사업 조성을 본격화한다.

시는 1단계 구간인 광남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역까지 2.28km에 폭 3~4m인 자전거도로를 올해 3월 착공해 연말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단계 구간인 고산지구에서 태전지구를 거쳐 광남생활체육공원 인근에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1.48km에 폭 3~4m는 2022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태전지구에서 광주역까지 10분 내외의 자전거로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자전거도로 시범사업은 광주역세권, 태전지구, 고산지구 등 대규모 도시개발로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용자 및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의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1단계 1구간에 대해 실시설계를 완료해 3월 착공을 준비 중이다.

또한, 자전거도로 시범사업과 연계해 도비 3억5천만원을 확보, 광주역 인근에 자전거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전지구~경기광주역 자전거도로

“광주에서 더 넓~더 긴 자전거도로로 매코라이프를 즐겨요~!”

태전지구 (21.3~22.5) 2단계

태봉교 (21.1~22) 1단계

<추진일정>

1단계 (21.1~21.12)	2단계 (21.3~22.5)
태봉교~경기광주역	태전지구~담안교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산·태전지구에서 경안천, 광주역까지 빠르고 안전한 레저형 및 생활교통형으로써의 자전거도로를 조성,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자전거와 연계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팔당하브섬&휴로드 조성사업과 연계한 경안천~퇴촌~팔당호코스과 광동리~하남~팔당, 곤지암천~경안천 코스 등 경안천, 팔당호 등 주요관광지와 연계된 생태 자전거 하이웨이를 구축해 자전거의 메카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용기자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민생살리기 세제지원 확대

도·시·군 세정과장회의 개최,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 운영 등 논의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도와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해 자주재원 확충 및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에 대한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금년도 도정 핵심과제인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역지원시설세 감면 추진을 위해 오는 3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시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6개 시·군에서는 지난해 이어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세 735억원, 재산세 417억원, 자동차세 931억원 등이다 또한,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체납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자의 90% 이상인 소액 100만원미만 체납자는 체납처분 보다는 납부독려,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경북형 체납 징수지원단을 도와 시군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4조원 시대를 열었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민에게 세제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최

대한 납부편의와 배려하는 현장 세정행정을 당부하면서 고액·고질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적극 활용해 소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내륙 최초 해양교육 요람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기본설계 보고회 개최

상주시는 1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원 및 관련부서 간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기본설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사업은 해양 체험·교육의 기회가 적은 내륙 청소년들에게 해양 역사, 해양 레저, 해양 안전 등 해양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교육과 해양교육 지도자 양성, 해양레포츠 지도자 양성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내륙권에서는 최초로 건립되는 해양교육원이다.

이날 보고된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은 낙동면 낙동리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384㎡ 규모로 건립되며 2022년 준공 예정이다.

152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해양안전훈련체험실, 강당, 세미나

실 등 연수시설을 갖춘 체류형 교육 시설이다.

플레이아키 건축사사무소 홍광기 대표는 지난 12월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안을 발전시켜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자연의 흐름을 담은 입면 계획과 연수시설과 숙박시설을 분리하면서 기능적으로 연결해 열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보고회 때 나온 개선 의견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인근 내수면 비즈니스센터 및 수상레저센터 등과 연계해 사용성·경제성과 함께 향후 유지 관리까지 고려한 명품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초 1~3학년 44학급 증설로 122학급을 30명 미만으로 조정

경북교육청, 초등학교 1~3학년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한 정원 외 교원 추가 지원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1~3학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추가로 44학급을 증설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실 내 방역 강화 및 안정적인 등교수업 추진을 위해 학년별 학생 수 30명 이상 학급이 한 학급 이상 있는 경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1학급을 증설하고 정원 외 교원 1명을 지원한다.

이번 학급 증설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도교육청 관계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2021학년도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우선 등교를 추진

할 방침이다.

“협력 수업”은 학교 여건과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된다.

현재 협력 수업을 위해 12명의 정원 외 교원을 투입하고 추후 학생 수 변동에 의거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추가 신청을 받아 지원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생 간 안전한 거리두기와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학급 증설 및 협력 수업 방안을 모색해 모두가 만족하는 등교수업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한다.

학습 격차와 더불어 발달 격차, 돌봄 공백 문제가 겹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지만 교실 내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하지만 44학급을 증설함으로써 학생 수 30명이 넘는 122학급이 30명 미만으로 조정돼 안전한 등교수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급 증설이 여의치 않은 과밀학급의 경우 정원 외 교원을 정규 수업에 지원하는 ‘협력 수업’을 운영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지도를 강화

대구 ‘D-방역’ 성과와 경험, 세계 각국 참여 국제 심포지엄 개최

D방역 성과·경험 국내외 전문가 발표, 대구방역 민·관·언론 대토론회 진행

대구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을 맞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민관 협력 및 시민참여 방역을 통해 극복해온 성과와 경험을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토론하는 ‘코로나19 대구 국제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를 2월 21일 개최한다.

지난해 2월 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후 1년여가 지나 개최되는 이번 ‘코로나19 대구 국제심포지엄 및 학술대회’는 대구시, 대구시의사회, 메디시티대구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대구시의사회, 대한예방의학회 등 관련 학회와 대구응급의료협력추진단 및 대구경북기차협회가 공동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지만 사태 초기부터 현재까지 대구가 겪으며 극복했던 많은 성과와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싱가포르, 덴마크, 일본 등 해외 각국의 사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미래 방향성을 논의한다.

오프닝으로 나서는 권기태 경북대의대 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을 주제로 국내에 사용 예정인 백신 종류와 그 효능 및 부작용, 보관법, 접종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특강을 진행한다.

2부 세션은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이며 사회 현상과 사회 정책에 관한 중요한 현상도 유명한 포스텍의 송호근 석좌교수가 ‘코로나19와 뉴노멀, 문명적 뉴딜’을 주제로 발표를 시작한다.

이어서 김건업 대구 코로나19 비상대응자문단 교수가 ‘대구의 코로나19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과 도전’을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 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대구시 의사회의 역할’을 발표한다.

국제 심포지엄단계 해외 각국의 코로나 방역 상황도 열볼 수 있다.

먼저 최근 지역감염자 한 자릿수를 유지하며 모범 방역국가로 손꼽히는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코

Program		COVID-19 백신 특강
09:00-09:30	COVID-19 백신	권기태 경북대의대 교수 특강
09:30-10:00	질문·답변	
10:00-10:30	대구시	대구시청 2층 대강당
10:30-10:45	대구시청 2층 대강당	대구시청 2층 대강당
10:45-11:15	대구시청 2층 대강당	대구시청 2층 대강당
11:15-11:45	코로나-19 국제심포지엄	ROTECH 4층 대강당
11:45-12:15	코로나-19 국제심포지엄	ROTECH 4층 대강당
12:15-12:30	점심	
12:30-1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2:45-1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3:15-1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3:45-14: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4:15-14: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4:45-15: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5:15-15: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5:45-16: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6:15-16: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6:45-17: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7:15-17: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7:45-18: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8:15-18: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8:45-19: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9:15-19: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9:45-2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0:15-2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0:45-2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1:15-2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1:45-2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2:15-2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2:45-2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3:15-2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3:45-0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0:15-0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0:45-0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1:15-0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1:45-0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2:15-0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2:45-0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3:15-0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3:45-04: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4:15-04: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4:45-05: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5:15-05: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5:45-06: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6:15-06: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6:45-07: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7:15-07: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7:45-08: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8:15-08: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8:45-09: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9:15-09: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9:45-1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0:15-1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0:45-1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1:15-1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1:45-1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2:15-1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2:45-1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3:15-1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3:45-14: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4:15-14: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4:45-15: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5:15-15: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5:45-16: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6:15-16: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6:45-17: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7:15-17: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7:45-18: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8:15-18: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8:45-19: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9:15-19: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9:45-2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0:15-2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0:45-2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1:15-2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1:45-2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2:15-2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2:45-2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3:15-2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3:45-0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0:15-0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0:45-0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1:15-0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1:45-0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2:15-0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2:45-0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3:15-0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3:45-04: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4:15-04: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4:45-05: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5:15-05: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5:45-06: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6:15-06: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6:45-07: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7:15-07: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7:45-08: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8:15-08: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8:45-09: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9:15-09: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9:45-1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0:15-1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0:45-1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1:15-1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1:45-1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2:15-1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2:45-1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3:15-1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3:45-14: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4:15-14: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4:45-15: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5:15-15: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5:45-16: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6:15-16: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6:45-17: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7:15-17: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7:45-18: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8:15-18: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8:45-19: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9:15-19: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9:45-2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0:15-2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0:45-2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1:15-2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1:45-2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2:15-2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2:45-2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3:15-2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3:45-0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0:15-0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0:45-0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1:15-0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1:45-0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2:15-0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2:45-0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3:15-0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3:45-04: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4:15-04: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4:45-05: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5:15-05: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5:45-06: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6:15-06: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6:45-07: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7:15-07: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7:45-08: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8:15-08: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8:45-09: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9:15-09: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9:45-1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0:15-1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0:45-1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1:15-1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1:45-1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2:15-1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2:45-1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3:15-1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3:45-14: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4:15-14: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4:45-15: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5:15-15: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5:45-16: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6:15-16: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6:45-17: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7:15-17: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7:45-18: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8:15-18: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8:45-19: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9:15-19: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19:45-2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0:15-2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0:45-2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1:15-2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1:45-2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2:15-2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2:45-2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3:15-2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23:45-00: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0:15-00: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0:45-01: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1:15-01: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1:45-02: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2:15-02: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2:45-03: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3:15-03: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3:45-04: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4:15-04: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4:45-05: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5:15-05: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5:45-06: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6:15-06: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6:45-07:1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07:15-07:45	경북·대구·대구시	경북·대구·대구시

새로운 숲 트렌드에 발맞춘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확충

청량산~무학산 연결고, 청량산 해양전망광장 조성

창원시는 숲의 새로운 트렌드인 산림복지서비스 시설 확충을 위해 무학산~청량산 연결고 설치 및 청량산 해양전망광장 조성사업을 올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직 생소한 단어인 “산림복지서비스”는 산림문화·휴양,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을 기반으로 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창원시는 등산로 319km 99개노선, 둘레길 143km 24구간, 2020년 도에는 원점회귀형 천주산 누리길 7.2km를 신규 조성해 많은 시민들이 산림을 휴식·휴양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시가 올해 추진하는 청량산 일대는 1910년 이전부터 교통망으로 사용되면서 무학산과 청량산이 단절되어 통행 및 등산로가 없어 이용객들이 연결다리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지역으로 2020년 행정안전부 지역 현안사업에 연결고 조성사업이 선정되고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청량산 해양전망광장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총사업비 22억원을 확보하

는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 해양전망광장 실시계획 및 연결고 디자인 용역 중에 있으며 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무학산을 기점으로 천주산, 정병산, 장복산, 불모산, 화등산까지 143km의 둘레길이 5km 늘어난 청량산부터 시작되어 청량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마산만 해안 전망이 가능해져 한층 플러스 된 창원시 전체 숲 체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종근 푸른도시사업소장은 “해양전망광장은 구산 해안선 전망과 마산만, 마창대교, 시가지 전경을 한곳에서 전망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무학산~청량산 연결고 조성은 끊어진 지맥을 연결하는 마산 대부흥 시도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창원시 둘레길과 연계해 관광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추후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숲길 조성으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경영기자



함안군승마공원, 부분 재개장 운영키로

함안군승마공원은 최근 비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2월18일부터 부분 재개장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승마공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 26일부터 임시휴장에 들어갔으나 최근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부분 재개장으로 인해 일반회원과 자마회원의 실외승마장, 타원형마장, 원형마장 이용이 가능해진다.

승마 시에는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후 승마를 실시

해야 한다.

단,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말먹이주기체험, 마차체험 등 방문객 체험은 중단상태로 유지되며 샤워실은 사용이 금지된다.

승마공원 관계자는 “생활방역체계로 전환 시 승마공원 전면 개장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번 부분 재개장 운영 시 시설의 공공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군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로 지쳐있는 승마이용객들의 심신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부산 해양자연사박물관, 스마트 전시관람 시스템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사업' 공모 선정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전국 공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해양자연사박물관 스마트 전시관람 시스템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관람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해 박물관·미술관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사업과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으로 구분된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전국 14개 시·도, 65개 박물관·미술관이 선정

된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 분야에 포함됐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스마트 전시관람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XR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 전시해설 안내시스템 구축 VR 전시공간 구축 탈공간화 교육프로그램 제공 빅데이터 관람객 통계시스템 개발 등이 추진되며 관람객들에게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선보여질 것이다.

최정희 부산시 해양자연사박물관장은 “이번 사업으로 워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물리적·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안전한 전시관람 문화를 구축하고 관람객들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는 새로운 전시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경영기자



울산시, 엘피지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추진

200대 지원 ... 2월 22일부터 신청 접수

울산시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엘피지 1톤 트럭을 신규로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지급하는 '엘피지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계형인 노후 경유차의 도심지 운행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울산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엘피지 1톤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소유자에 대해 지원된다.

울산시는 작년 228대에 대해 보조금 9억 1,2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200대에 지원할 계획이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오는 2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등기우편접수만 가능하며 접수 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서와는 별도로 엘피지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생계형 차량인 1톤 화물차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엘피지 1톤 트럭으로 전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당부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 -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상호 협력 협약 체결

경상남도 내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방안 모색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와 경상남도창조경제혁신센터가 17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교류공간에서 이은진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이동형 창조경제혁신센터장과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상남도 지역혁신플랫폼 사업 프로그램 협력을 통한 취·창업 지원 지역의 기술창업자 및 유망 예비 사회적기업의 우수 아이템 사업화 지원 인적·물적 자원 및 보유시설 공동활용 등을 상호 협력하게 된다.

양 기관의 상호 협력 협약으로 지역 우수 인재들을 위한 취·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진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통해 양성된 우수한 인력이 지역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취향과 적성에 맞는 활발한 창업 활동을 독려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동형 재단법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모든 혁신의 동력은 젊은 인재에서 출발한다.

경남 청년들이 도전하고 실험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작년 교육부에서 공모한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총괄대학인 경상대를 비롯해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등 도내 17개 대학과 LG, NHN, KAI 등 주요 기업을 포함한 49개 협력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경상남도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은 3대 핵심 분야를 경남의 강점인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함으로써 경남의 산업·경제 혁신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한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활동가 육성과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개념의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사업화 모델 발굴을 추진해 지역혁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광용기자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 선정

창원 만날공원 사랑의 숲 조성 추진



창원시는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2021년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창원 만날공원 사랑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지역 주민의 녹색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작년 4월 공모사업을 신청해 현장점검 및 서면평가와 종합평가를 거쳐 8월 전국 7개 중 경남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만날공원 사랑의 숲 조성사업'은 국비 5억50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해 기존 산림육장과 산책로를 정비하고 유아 놀이터를 조성

하는 등 공원 이용객들에게 도심 속 녹색 휴양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원 내 도로로 인해 단절되었던 무학산둘레길을 출렁다리로 연결해 오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은 “만날공원 공모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시설 확충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며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 상반기 공사 착공하고 하반기 중 공사 완료해 주민여가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영기자

전문성 있는 언론인 연수

인론 조사, 분석, 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 뉴스서비스

뉴스 저작권 보호 및 관리

과학적인 정부광고 집행

전 국민 대상의 미디어 교육

읽기문화 강연회

소외계층 매체 취재, 제작 지원

소외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국민

언론과 국민을 잇는 이음줄이 있습니다

“신뢰받는 언론, 소통하는 사회, 뉴스생태계 혁신을 위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함께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전남도, 지역상품 디자인 개발 성과 '뚜렷'

참여기업 온라인 매출액 35% 이상 증가... 각종 대회 휩쓸어

전라남도는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 '지역 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의 지난해 온라인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5% 이상 증가한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됐으며 품질은 우수하지만 열악한 재정상태로 상품디자인이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를 따라가기 어려운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왔다.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을 통해 사업 초기부터 개발까지 모든 과정을 자문 받아 브랜드 및 패키지디자인을 개발하게 된다.

이같은 결과 참여 기업 대부분의 매출액이 증가했고 해외로 진출한 기업도 많았다.

실제로 2017년 ㈜장흥식품이 LA 상설판매장에 입점해 '햇콩마루 세트'를 판매한 결과 3만 달러 실적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땅콩햇살한 영농조합법인의 '아이스 고구마', 농업회사법인 무화담의 '청무화과잼'이 미국을 비롯 싱가포르·호주·필리핀과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2020년에는 농업회사법인 산들해가 구운 유과를 개발해 미국 내 70여개 점포에 입점했으며 전국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독자개발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유기농차 등을 생산중인 보향다원도 올 상반기에만 10만 달러 이상의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 실적에 힘입어 수상 실적에서도 큰 성과를 보였다. 2018년 땅콩햇살한 영농조합법인이 창조혁신 브랜드 대상 수상했으며 2019년,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우수마을기업 경진 대회에서 농업회사법인 송시마을과 지내들영농조합법인이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참여 기업들의 뚜렷한 성과로 브랜드·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지난해 30개사를 선정하는데 74개

사가 지원해 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정보화마을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사업 선정에 열띤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전라남도는 올해 공모로 30개사를 선정해 1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며 3월 중순 전라남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정영수 전라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올해로 5년째를 맞은 디자인 개발 사업이 지속적인 노력 끝에 결실을 맺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고 있는 도내 기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최형식 담양군수, 화재안전을 위한 '119 릴레이 챌린지' 동참

챌린지 주자로 김종식 목포시장, 허석 순천시장, 유근기 곡성군수 지명

담양군은 18일 최형식 담양군수가 황숙주 순창군수로부터 지목을 받아 겨울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1월 9일 제 58회 소방의 날을 맞아 시작된 SNS 캠페인 활동으로 화재 초기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챌린지는 '1-하나의 집·차량마다, 1-하나의 소화기·감지기를, 9-구비합시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촬영한 뒤 페이스북 등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실내 활동 및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인해 화재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분들이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담양군은 화재예방을 위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 사업을 추진 중이며 피해 시 지원을 위한 주민안전보

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한편 최형식 담양군수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김종식 목포시장과 허석 순천시장, 유근기 곡성군수를 지명했다.

오홍근기자

목포시, 코로나 수칙 준수 속 목포실내수영장 개장

19일부터 운영. 셔틀버스 미운영, 자율수영만 가능

목포시가 코로나19로 휴장 중이던 목포실내수영장을 오는 19일부터 개장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수영장을 개장했다.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용자는 수영장 내에서 최소 2m 간격 유지 이용자 간 신체접촉 및 대화 자제 사위장, 발의실거리 유지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 등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발열 체크를 통해 유증상자

의 입장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자 기록 등을 통해 입장자를 관리할 방침이다.

또 수영장 방역을 위해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동안 소독, 환풍, 물 정화시간 등을 운영한다.

실내수영장 셔틀버스는 버스 내거리두기가 어려워 운행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운행 여부는 추후 공지할 방침이다.

또한, 수영강습은 강사와 강습생의 신체 접촉 및 대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별 자율수영만 운영하며 강습회원도 모집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실내수영장의 단계적 운영에 시민 여러분의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김영록 지사, "청년회의소, 지역발전 앞장" 당부

전남지구 청년회의소 회장단 감사 이취임식 참석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7일 전남지구 청년회의소 회장단 및 감사 이·취임식에 참석해 "지역 리더인 청년회의소가 지역발전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목포 예술웨딩컨벤션에서 가진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병덕 해남군의회 의장, 신인창 전 한국청년회의소 부회장을 비롯 한국청년회의소 역대 회장·임원, 도 및 시군 청년회의소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지구 청년회의소는 제52대 회장으로 이상현 전 해남청년회의소

회장을 선임했으며 참석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행사는 표창장 수여, 김영록 도지사 축사, 이·취임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현 회장은 "지난 임기 동안 회원들이 보내준 응원과 신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상현 신임 회장은 "열정도전 창조적인 전남지구청년회의소"라는 슬로건으로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해 전남지구 청년회의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이취임식

을 축하한다"며 "지역사회의 리더이자 주역인 전남지구 청년회의소가 전남 도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1969년 창립한 전남지구 청년회의소는 지도력 배양, 지역사회 개발, 세계와의 우정, 기업능력 배양 등 4대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30개 권역 1천여명의 회원이 혼융한 지역 만물기와 지역 전통문화 육성, 푸른전남가꾸기 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있다.

김영안기자

피카소와 함께 떠나는 힐링여행 전북투어패스와 함께 하는 피카소 특별전 개최

전북투어패스와 정읍시립미술관 피카소 특별전 연계한 패키지 상품 개발

전라북도 정읍시립미술관 기획 전시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정읍에서 사랑에 빠지다' 특별전과 전북투어패스 연계상품을 개발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북투어패스는 피카소 특별전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읍 내장사와 주변 카페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했다.

패키지 A, B, C로 구성하고 패키지 A와 B는 6,000원, C는 7,000원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관람객들은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피카소 패키지 상품은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 네이버, 옥션, 위메프, 티몬 등 10여 개의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고 현장구매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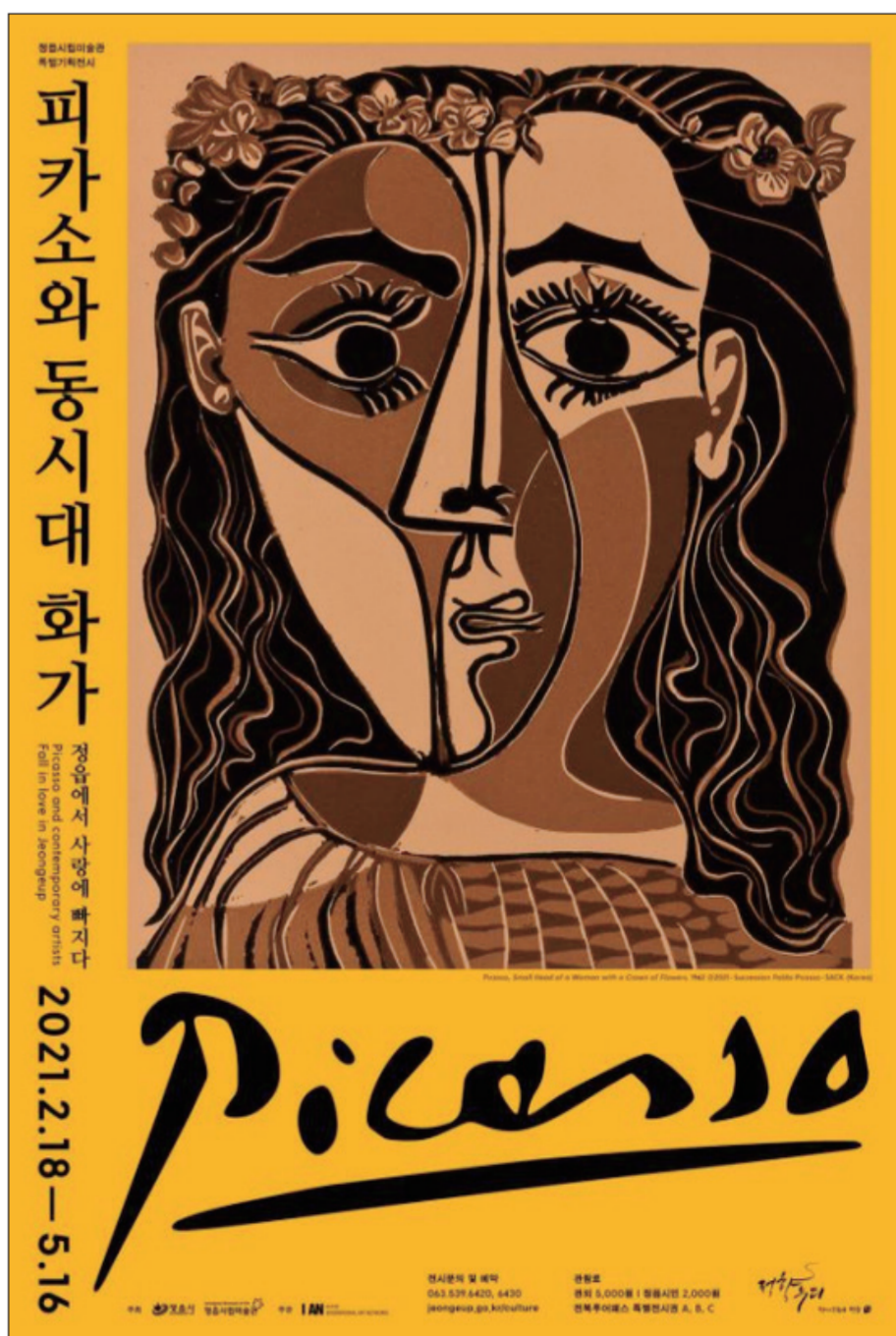
정읍시립미술관 피카소 특별전은 18일부터 5월 16일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피카소와 20세기 동시대 화가들 작품 25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입체파 거장 파블로 피카소의 유화, 드로잉, 판화, 도자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각, 브라크, 미로 뒤뷔페 등의 작품을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비대면 관람을 위한 온라인 미술관도 열린다.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미술관 이용 인원의 50%를 제한한다.

정읍시립미술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인원은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현장에서도 매시간별 관람 인원을 조정하고 발열체크, 참석명부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된다.

전북도 율여일 문화체육관광과장은 "앞으로도 전북투어패스 취지에 맞게 한국 다, 하루 더, 한번 더 머물 수 있도록 숙박시설, 농촌체험, 지역



축제 등 다양한 연계상품을 개발하겠다"라며 "전북투어패스의 상품성을 강화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목·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펼쳐 관광객 유입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해남군 "만호해역 절대 포기 없다" 군정 총력 지원

민사소송 항소 지원, 현재 권한쟁의 심판 제기로 근본 해결방안 모색

해남군은 만호해역 어장사용권리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지원 등 어민 생존권 보호에군정 역량을 총력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민사부는 해남군수협과 진도군수협 간 만호해역 어장사용 권리 다툼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어장을 인도하고 김 양식시설물 철거를 이행하라"는 피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해남군수협측은 "1심 판결에서 2011년 당시 무면허 해역에 대한 신규 면허는 진도측의 1,370ha뿐인데 해남측에도 당시 신규 면허가 승인됐다는 등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 아쉬움이 크다"며 "민사소송에 항소해 이러한 내용들을 바로 잡고 해남 어민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해남군은 항후 민사소송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반복되는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해남군은 이미 지난해 10월 28일 진도군과의 관할해상 경계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청구서의 내용은 "유인도 기준 등 거리 중간선의 동쪽해역 관할권은 해남군에 있다"는 취지로 최근 현재 판례에도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이 잘 나타나 있어 해남군이 유리한 입장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군정 해양수산과 내에 만호해역대응전담TF팀을 신설하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다수의 해상경계 권한쟁의심판을 수임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해마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해남군은 민사소송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최종 결정까지는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의 축적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

권이 걸린 문제인 만큼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총력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현관 군수는 "10년마다 반복되는 분쟁 및 갈등으로 막대한 행정적 낭비는 물론 서로간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으로 정면돌파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양영율기자



일자리 창출 3000개 창출 및 코로나 19 위기극복 소상공인지원 선제적 대응으로 서민경제 안정화 및 경제도약 실현 총력

김제시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의 중요 프로젝트로 추진해 구축하고 운영중인 김제고용안정일자리센터는 지난 6월, 지역주민 채용을 통해 센터 구성을 완료하고 업무 개시 이후 빠르게 지역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괄목할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성과로 김제시 내 신규 취업자수는 512명으로 2018년 동기 대비 334%가 증가했으며 구인처 발굴은 76건, 구직자발굴은 891명, 알선 건수는 586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괄목할 성과를 거뒀으며 2021년에는 42억원을 확보해 중소기업난 이력해소와 지역 일자리창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중년의 풍부한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인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및 경력형인자리 사업으로 3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특히 올해사업으로 국도비 3억9천만원에 포함할 총사업비 5억9천만원을 확보해 복지사각지대 맞춤형 서비스제공사업외에 환경취약계층 정리수납메모리서비스사업 및 치매선별검사전담상담을 위한 백세건강지킴이 사업등 3개 신규 발굴해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신중년 취업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신중년취업지원사업으로 15명 예산을 확보해 기업에 취업시 기업에 최대 1년간 1인당 월 취업지원금 70만원을 지원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취업자에게 2년간 2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해 신중년에 게 중소기업 등의 수습 기회를 제공해 직장경력을 쌓아 정규근속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며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통한 고용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장기실업자 등 시민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해 근로 기회를 부여하고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에는 공공일자리사업에 공공근로사업 318명, 희망일자리사업 362명, 단기일자리사업 54명, 지역일자리사업 30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9명 총 783명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위기에 대처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 제공해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성과를 거뒀으며 2021년에도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저소득층 취업난 해소를 위해 공공근로 예산을 추가확보해 연 500여명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업문제 고민하는 청·장년층들의 일자리 요구 충족과 적합한 인재를 찾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행사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해 지난해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기업의 맞춤형 인재채용과 꿈을 찾아 도전하는 인재들의 만남의 장인 '2020 김제시 그랜드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전북대 내 규모 있고 건실한 우수기업 55개 업체가 참여해 78명이 신규 취업자로 합격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구인구직만남의날 행사에는 김제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및 마스크 제조기업(썬리소, 도계 및 계속 가공 전문기업(썬사조원, 특장차 제조업체(썬유니캠프, 장류 제조기업(썬참고) 등 총 4개 업체와 일자리를 희망하는 청·장년층 구직자 100여명이 참여해 현장면접을 성황리에 마치고 최종 43명이 신규 취업자로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구인구직만남의날을 매월 실시하고 다채로운 채용행사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제공해 청·장·노년층,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2021년도에는 매월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예산 긴급 투입 및 김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전통시장 청년몰 '아리락' 개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발빠르게 대응해 어려운 서민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으로 정부지원 및 전라북도 지원금 외에 김제시 긴급 자금을 확보, 투입해 긴급 경영자금으로 개소당 20~50만원씩 1, 2차에 걸쳐 총 2,450여개소에 약 2,362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임대료로 1,296백만원을 지급했으며 3차 재난지원금은 2021년 2월중에 개소당 50만원으로 3,300여 개소에 1,700백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소상공인육성지원기금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1억원 이내의 대출금에 따라 발생한 이차액의 3%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는 33개 업체에 3천2백여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소상공인들의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사업을 활발

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개선·경영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점포당 최대 1천만원 이내 지원으로 현대식 시설개선사업 및 상품배열 개선, 제품 포장 등 맞춤형 경영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 소상공인 소득증대, 시민 경제부담을 덜어주는 김제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상품권 구매처도 지역 내 농협, 우체국 등 33개 은행으로 확대했으며 젊은층을 위한 맞춤형으로 김제사랑상품권 전용 앱 '고향사랑페이'를 운영해 구매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167억원 증가한 850억을 발행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10% 특별 할인 판매를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수익모델 발굴, 점포별 포장재 및 신메뉴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 청년상인들의 역량 강화 및 창업 성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청년일자리 핵심정책이자 공약사업인 '청년인턴사업제'를 2019년 7월부터 시행, 기업과 청년취업의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기업 신규 고용창출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통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청년인턴사업제는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9년 41명, 2020년 30명, 2021년 51명을 선발, 총 12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에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나아가, 올해 8월부터 성과분석 운영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확대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의 중으로 2021년에는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공모를 통해 만18세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관공서 사회복지법인, 민간육종연구단지 등에 장·단기 일자리 지원을 통해 동업기관 취업 및 일 경험 등을 통한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로 타 기관 취업 연계 등의 성과를 올렸다.

시는 지난해 10월 27일 신풍동에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13억원을 투입해 지상 2층 규모로 신규 조성한 '김제청년공간 E :DA'를 오픈해 청년창업 1번지로서의 자리를 굳히고자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인재를 발굴하고 역량 있는 청년창업가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김제청년공간 E :DA'를 원스톱 청년창업 플랫폼으로 조성, 청년창업도시 이미지가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 청년창업가 '아리'를 지난해까지 38명 발굴 육성했으며 올해는 2월중으로 10팀의 신규창업가를 발굴, 창업 초기비용 지원 및 교육·맞춤형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한 청년 CEO 의 데스벨리 극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청정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청년 CEO가 온라인 홍보 등을 위한 비대면·디지털 관련 청년을 신규 채용 시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를 월 18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1,800만원을 지원하고 참여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ICT 관련 기본 교육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청년사업가들을 위해 신규 발굴, 추진하는 이 사업에는 총사업비 14억 5천만원을 투입, 신규 청년일자리 60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공간대 확산 시는 취약계층의 가스시설 개선지원을 위해 지난해 170백만원을 확보해 661세대에 고무호스 금속배관을 교체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29가구에 지원했다.

또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연탄쿠폰 지원사업, 난방유 지원사업을 시행해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을 완화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 정책에 부응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정책의 전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북도, 농업기계화사업 85억원 투자

농기계 종합보험료 80% 지원으로 농기계 안전사고에도 대비

전라북도가 농촌 인력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기계화사업에 85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화로 농촌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노령화 가속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농업의 기계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가 농기계임대사업소 개설 등 5개 사업에 85억원을 투자하며 농촌의 기계화에 한 걸음 나가는 동시에, 농기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고령농 및 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등 4개 사업에 61억원을 맞춤형으로 투자해 농촌 인력난 해소를 물론 농기계 개인 구입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불리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여성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농기계를 임대 해주는 여성친화형농기계를 8개 시·군에 9억원가량 지원할 예정이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노후화된 농기계를 신형 농기계로 대체해 임대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노후장비 대체에 12개 시·군 25억원과, 농작업이 어려운 고령농업인 등에 대한 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업대행 장비도 2개 시·군 및 7개 농협에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북도는 이와 함께, 중·대농업인을 대상으로 종자 파종에서 농산물 수확까지 일관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중·장기적으로 임대해 주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에 12개소, 24억원을 투자해 농업의 기계화를 한 층 높일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기계화 확대에 따른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 보험료도 80% 지원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농기계뿐만 아니라 농업인 자신의 신체상해,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보험대상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신청하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경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농가는 14,496건으로 2019년 13,191건에 비해 10% 늘어났으며 보험에 가입한 농업경영체 중 945건의 사고가 발생해 4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농업인의 신속한 회복을 도와 안전망 역할을 했다.

김창열 전라북도 농산유통과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농기계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 농기계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승일기자

무주군, '무주군청부터 나트륨 저감운동에 동참'

무주군이 나트륨 과잉섭취 예방으로 건강한 식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삼삼급식'을 운영하는 급식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이기 점검에 나섰다. 무주군청부터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관내 음식점을 비롯해 전 군민으로까지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에 동참하는 급식소와 음식점은 10%이상 나트륨을 저감해 한 끼 분량 나트륨 1,300mg 미만인 메뉴, 또는 30%이상 나트륨을 저감한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삼삼급식'은 매일 한 끼 성인 1회 기준으로 나트륨 함량을 1,300mg 이하로 식단을 제공하는 급식을 말한다.

군청부터 동참하자는 취지로 실시된 이번 점검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이뤄졌으며 나트륨 저감 급식 운영 및 염도측정관리, 식단의 권장

섭취량 및 나트륨 함량 정보 게시 상태, 김치의 나트륨 저감 및 염도관리 등을 중점 확인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나트륨 줄이기 실천을 위한 기준치 권장 등 적절한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군은 실천음식점 참여 독려를 위해 지정음식점을 대상으로 현판, 메뉴보드, 염도계 등의 홍보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 참여를 위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김여령 팀장은 "세계보건기구 기준 일일 나트륨 섭취 권장량이 2,000mg 이하로 건강을 위해서는 나트륨 줄이기 식생활 실천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관청과 음식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기자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경북농촌체험휴양마을

美에 반하다

천안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고졸 인재 성장 경로 구축

직업계고 우수 인재 교육~취업~정착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천안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기계, 자동차부품 분야의 고졸 인재 성장 경로 구축에 나선다.

시는 지난 16일 2021년 교육부 공모사업인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에 최종 선정돼 올해 4억원을 지원받아 최대 3년간 총사업비 20억원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천안시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의 협력으로 고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는 이번 사업은 지구 내에 있는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간 연계를 통해 고졸 인재 성장을 지원한다.

천안시에서는 천안공업고 외 6개교, 에드워드코리아 외 74개 기업, 한국기술교육대 외 3개교가 참여해

지역 전략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천안시 전략산업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기계, 자동차부품 분야로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지구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직업계고 인식개선 홍보를 통한 우수 신입생 모집 우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 산업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학과 개편을 통한 일자리 확대 및 취업지원 대학 연계를 통한 심화학습 지원 지역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주거 등의 실질적 지원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과의 협력으로 직업계고의 우수한 인재가 천안에서 취업에 성공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역 기업 및 대학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원호/기자



횡성군,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지역 감염 조기 차단에 총력

횡성군이 코로나19 선제적 대응하며 지역 감염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은 매주 화,수요일 관내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35개소 430여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2월 16일까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오는 23일부터는 기존 35개소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시설 8개소 이용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포함해 주 1회 전수검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에 종료된 '한 집 한 사람 검사받기' 결과 총 881세대가 검사를 받았으며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동원/기자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횡성군보건소 선별진료소는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2일부터 운영 종료 시간을 1시간 연장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휴일 없이 매일 운영한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동안 타 지역 방문 및 지인·가족 모임 후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는 분들이 보건소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태현숙 횡성군보건소장은 "신속한 진단검사 실시로 일상 속 감염 사례 발생 및 무증상에 따른 조용한 전파의 감염고리가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하늘내린 오대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추진

인제군이 하늘내린 오대쌀의 소비 촉진과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2021년 지역 쌀 소비 촉진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밥맛 좋은 하늘내린 오대쌀의 우수성 홍보와 관내 지역 농산물 애용을 통해 수도작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소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억4,000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외식업소 및 떡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외식업소 및 떡류 제조업체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인제하늘내린오대쌀 1포를 구매할 때 1만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예산의 재원은 군비 50%, 농협부담금 50%이다.

군은 올해 인제 하늘내린 오대쌀 2만포를 지원할 계획으로 이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연중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지역 내 외식업소에서 인제하늘내린 오대쌀의 사용을 유도하고 인제 쌀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과 미질 향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이를 통해 지역 내 인제 하늘내린 오대쌀 소비 촉진으로 지역주민 간 상생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애용으로 지역 농업인들과 지역 상인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근/기자



대전에선 문화 차이, 언어 차이도 이제 걱정 없어요

대전시-하나은행-외국인사랑의진료소 외국인주민위해 협력

대전시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18일 오전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은 이날 오전 10시 정동 소재 하나은행 대전역전지점 2층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에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유미 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 외국인 시정참여회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 등 주요행사가 개최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지난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민·관 협업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한 윤순기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 총괄대표와 박정기 외국인사랑의진료소 대표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대전시는 지역 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의 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설립을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해 왔다.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는 하나은행의 컬처뱅크 프로젝트와 연계, 하나은행 대전역전지점 유휴공간을 리모델링 후 무상 임차로 통해 조성됐으며 2층은 사무실·강의실·무료진료소, 3층은 강의실·디지털존·상담실·쿠기스튜디오·다문화도서관, 옥상은 야외쉼터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주민 기초생활 적응교육, 법률·생활상담 등 외국인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외에도 다양

한 분야의 민간 교류 및 자매·우호 협력도시와의 교류증진 등 국제교류 업무도 통합 수행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사업 운영 목적이 부합하고 설립 초기에 안정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 운영하게 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외국인주민은 언어장벽이나 문화차이로 인한 어려움,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불편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다"며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외국인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계룡시, 현안사업은 빈틈없이 꼼꼼히...

2020년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지시사항 등 208건 조치현황 점검

계룡시는 지난 16일부터 3일간에 걸쳐 류재승 부시장 주재로 2020년 하반기 지시사항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과 함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0년 하반기 지시사항으로는 코로나19 대응 128건을 비롯해, 업무지역 공동주택 주차공간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계획 종합 검토 등 총 208건으로 이 중 190건은 완료했고 계룡대로 구간 도로변 미관 개선 방안 마련,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계룡시 뉴딜사업 적극 발굴 등 18건은 추진 중이며 실행이 완료되지 않은 18건에 대한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부서별 협업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



다.류재승 부시장은 "아직 미완료된 지시사항은 조속히 추진하고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면서 민원과 관련된 사항은 추

진상황을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 했다.

김원호/기자

황선봉 예산군수, 2021 주요사업장 방문 12일간 일정 마무리

12개 읍면 주요 사업장 62개소 방문 마쳐, 현장행정 및 섬김행정 적극 추진

황선봉 예산군수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17일까지 12일간의 관내 주요사업장 62개소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군민 안전의 최우선 확보를 위해 해마다 진행하던 업무보고회, 읍면 순방 등 연말연시 모든 행사를 취소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방문은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군에서 역점 추진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살피기 위해 진행됐다.

황선봉 군수는 수해복구 사업장 및 복지·관광·체육·환경 분야 등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장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평소의 지론인 현장행정과 섬김 행정을 실천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현장에는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참석했으며 황선봉 군수는 각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을 바라보는 역지사지의 자세와 노력을 당부했다.

군은 현장방문 시 제기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부서 검토와 예산 반영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황선봉 군수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보고 들은 내용을 군정에 반영해 군정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행정과 섬김행정을 강화해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온실가스 줄이기, 환경보전 실천에 앞장서는 '초록마을'모집

청주시내 아파트와 도시·농촌마을을 대상, 3월 19일까지

청주시가 초록마을사업을 위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마을을 대상으로 참여 공모에 나섰다.청주국제에코플렉스와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는 2021 초록마을사업에 참여할 '초록마을'을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초록마을사업은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줄이기와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청주시에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 시민실천프로그램이다.

2020년부터 '초록씨앗마을 - 초록나무마을 - 초록꽃마을'개념을 도입해 마을 활동비를 선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초록마을사업에 선정된 마을은 초록마을추진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지원단과 진행비를 지원받아 공동실천사업과 자율실천사업을 진행하는 등 각 마을에서 초록마을사업추진위원회 '초록마을'을 3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연말에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감축노력 등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초록우수마을을 선정하고 선정된 우수마을에는 소정의 현물 인센티브 지급과 차기년도 초록나무마을, 숲마을의 자격을 부여한다.

참가대상은 청주시내 공동주택이나 도시·농촌마을이며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청주국제에코플렉스 홈페이지

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3월 19일까지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발적 시민실천 프로그램이 활성화 돼야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 초록마을사업 활동 영상은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다. 전년도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진행하던 대규모 활동발표회를 하지 않는 대신 SNS로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초록마을 활동 영상을 제작했다.

최만식/기자

장학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한 70대 만학도의 선행 '눈길'



70대 중반의 만학도가 대학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받은 '면학장학금'을 다른 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해 화제다.

감동의 주인공은 신현문씨로 18일 계명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자신이 받은 장학금 100만원을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칠곡군 관계자에게 '호이상학금'으로 전달했다.

신 씨는 학사모를 쓰고 활짝 웃으며 "배고픔 보다 배우지 못한 한이 더욱 큰 고통"이라며 "가난으로 배우지 못해 평생의 한을 갖는 분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씨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다.

칠곡군 기산면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간신히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다.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지만 가난이 배움에 대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친구들의 교과서와 노트를 빌려 독학을 하며 학업에 대한 열망을 채워 나갔다.

30대에 접어들자 농촌 생활을 청산하고 대도시에서 사업에 도전해 성공한 사업가로 명성을 얻었으나 중국산 저가제품과 IMF로 인해 부도를 맞게 됐다.

예수를 믿기면서 상가임대사업으로 매월 고정수입이 발생하며 생활이 안정이 되자 그동안 못했던 공부에 대한 열정이 다시 솟아났다.

신 씨는 "처음에는 이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도 될까 망설였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평생토록 간직해온 배움의 한을 풀기 위해 공부를 시작했다"며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실천

하며 도전하는 것이 노년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보내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6년 7개월간 고시원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69세 나이로 중학교·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에 합격한 데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에까지 도전 이듬해 계명대 역사학과에 입학했다.

신 씨의 대학생활은 꼬불꼬불한 영어보다 반백년 나이 차이가 나는 동기들과 친목을 다지지 못해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며 한 달에 백만원 이상 사비를 들여 밥을 사주기 시작하자 학생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말이 잘 통하는 밥 잘 사주는 착한 형, 오빠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학위 수여식에서도 학생들이 신 씨를 보자 "형 축하해요"고 인사를 건네며 손을 맞잡았다.

평점 4.5점 만점에 3.8이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3월 계명대 일반대학원 역사학과에 진학한다.

신 씨는 "다른 학생들처럼 결혼 걱정과 이력서 쓸 일도 없으니 점수 욕심을 버렸지만 동기들의 도움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됐다"며 "마지막 숨을 다하는 순간까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신 씨의 기부는 금액을 떠나 그 어떤 기부보다 숭고하고 가치가 있다"며 "기부에 담긴 뜻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호이상학금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주)창조원, 의왕시에 500만원 상당 후원품 전달

의왕시 청계동에 소재한 친환경 실내외 벽면녹화 및 조경 전문기업 (주)창조원에서 17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의왕시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상돈 의왕시장을 비롯해 박창일 대표이사, 김기찬 본부장, 백인봉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창일 (주)창조원 대표는 "코로나 19로 사회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보내주시는 기부가 큰 힘이 된다"며 "시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성욱기자



가남읍, 향긋한 커피처럼 피어오르는 이웃사랑

가남 L카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백미 40kg 기탁

지난 17일 가남읍 일신로에 위치한 L cafe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달라며 20만원 상당의 백미 10kg 4포를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L cafe는 작년 겨울에도 카페에서 개최한 자선음악회로 마련한 수익금으로 동절기 저소득 가구를 위한 백미 10kg 45포를 가남읍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L cafe 이혁준 대표는 "이웃사랑을 실천 하고자 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쁜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잘 전달되었으면 한다 앞으로도 기회가 생기면 언제든지 이웃을 위한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대준 가남읍장은 "찬바람이 부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가남엔 이미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듯하다"며 "따뜻한 커피처럼 훈훈한 나눔을 이어가주셔서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성욱기자



의령문인협회 새임원 구성 회장 곽향련 시인, 부회장 이광두 시인

지연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의령문인협회는 비대면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새임원을 구성했다.

회장에 곽향련 시인을 선출한데 이어 부회장은 이광두 시인을 선출했다.

사무국장에는 정영길 시인이, 사무차장에는 김인선 수필가가 선출됐고 감사는 주향숙 시인이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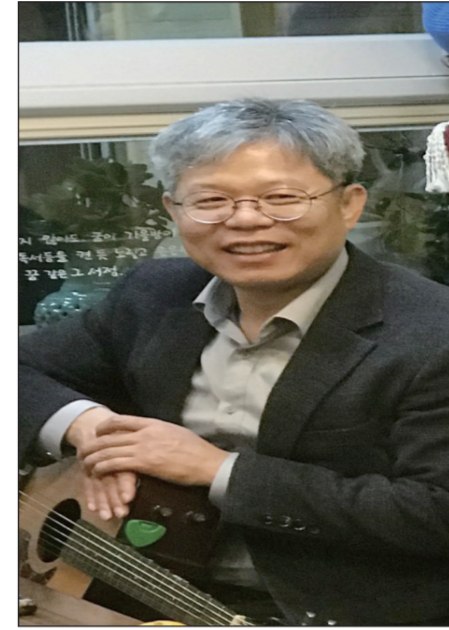
은상, 제17회 공무원문예대전 동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파손주의'가 있다.

곽향련 회장은 "문학적 토양으로 의령사람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낭송과 더불어 시화전으로 주민과 함께 생활속 문학을 실천하며 누구나 글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 관내 학생들에게 글쓰기 교실을 열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1997년 4월 17일 창립한 의령문인협회는 회원들과 함께 다양한 문학사업을 펼쳐가고 있다.

의령군에서 주최하는 천강문학상과 청소년천강문학상을 주관하고 있으며 회원들과 함께 책 발간과 시화전, 시낭송회, 문학기행 등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25호를 준비하고 있는 '의령문학'은 12월에 년간으로 발간하고 있다.

시화전은 4월에 열리는 의령제전과 10월에 의령예술촌에서 열리는 아름다운 의령전, 또 가을에 군민감동 시화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문학기행은 연중 두 차례 갖는다.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곽향련 회장은 의령군 화정면에서 출생했으며 2004년 월간 '문예사조'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제12회 공무원문예대전 시부문 우수상, 제13회 공무원문예대전 시부문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일산정발 로타리클럽 후원으로 새 학기 맞이 후원금 및 학용품 전달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가, 일산정발 로타리클럽의 후원으로 설 명절 후원금 100만원과 100만원 상당의 새 학기 맞이 학용품 총 40명의 청소년들에게 지난 10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전달했다.

일산정발 로타리클럽 김태림 회장은 "배움누리 청소년들을 위해 클럽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며 준비했다.

후원금과 학용품을 통해 청소년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공부도 열심히 해, 올 한해 힘차게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원을 받은 배움누리의 염지현 청

소년은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하는데 후원금으로 교복을 구입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한다"고 말했고 박성재 청소년은 "학년 올라가면서 노트가 필요했는데 새 노트를 선물해 주셔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일산정발 로타리클럽은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와 함께 매년 명절 후원사업 및 정기적 장학금 지원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 인재 양성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영근기자

AI Artificial Intelligence

교육도시 오산

청계천 제조업 10년 기록담은 다큐멘터리 무료 상영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을지로예술센터에서 상영, 전시회 병행

중구는 청계천 일대 도심산업 이야기를 담은 3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계천일대 제조업 현장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를 온·오프라인으로 선보여 청계천의 특화된 제작 문화 등 다양한 면모를 도심지역 예술가, 기술자, 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중구문화재단에서 기획했다.

청계천과 을지로 등 세운일대는 작지만 수십 년의 역사를 지닌 제조기업이 존재하고 그곳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숙련자들이 밀집해있어 독특한 제조업 생태계가 만들어진 서울 도심제조업의 핵심공간이다.

흔히 이 일대 공장을 가리켜 “뱅크도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운 일대 제조기업 절반 이상이 단하나의 제품이나 공정에 특화된 전문기업으로 평균 31.4년간 한 분야에 근무하는 작지만 오래 한우물을 파온 전문성 때문이다.

이러한 청계천의 10년 기록을 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서는 청계천메들리 청계천아트라스:메이커시티시, 소 총 3편의 작품을 무료로 상영한다.

“청계천메들리”는 제61회 베를린국제영화제 후보작으로 한국의 산업화를 대표하는 청계천을 이미지·사운드 트랙을 통해 감각적으로 드러낸 실험적 다큐멘터리다.

“청계천아트라스:메이커시티”는 제24회 서울인권영화제 삶의 공간 부문 후보작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한 여러 인터뷰를 통해 서울의 도시계획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존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시,소”는 청계천 세운교 위에서 3명의 아티스트와 제작기술자가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시민과 만나게 되는 과정을 담았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을지로예술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선



보이며 '시,소' 제작과정을 엿볼 수 있는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사전에 신청받는다.

또한, 오는 24일까지 사전에 네이 버로 예약하면 상영 링크 문자를 개별 발송해 온라인으로도 즐길 수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청계천 일대는 새로운 산업과 30년 이상 일한 숙

련 기술자의 협업, 다양한 기술의 공정 등 고유한 생산 지식이 집약되어 있어 그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국경이 닫히면서 지역 생산이 중요해지고 도심제조업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며 “이번 상영회를 통해 이 지역의 10년의 기록을 공유하고 청계천 제조업 현장에 관심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울산암각화박물관 숲속의 박물관 학교 '실로 있는 암각화와 나' 참가 단체 모집

울산암각화박물관은 반구대 암각화와 박물관에 대한 어린이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3월부터 11월까지 숲속의 박물관 학교 '실로 있는 암각화와 나'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암각화박물관을 둘러보고 대곡리 암각화 속 동물 문양을 활용해 실로 그림을 그리는 스트링아트 체험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6세 이상 어린이로 구성된 유치원, 어린이집 등 단체로 신청인원은 최소 10명 이상, 최대 20명 이하이다.참가비는 무료이다.

매월 둘째·넷째주 화·목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1시 30분에 암각화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며 소요시간은 40분이다.

신청기간은 행사일정을 기준으로 직전 달 넷째주 화~목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이다. 예를 들어 3월 일정에 대한 신청은

2월 23~26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받는다.

신청은 전화 예약으로만 접수하며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체험 관련 문의 사항은 052-229-4794로 하면 된다.

한편 올해는 반구대 암각화 발견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반구대 암각화에는 사슴, 호랑이, 멧돼지, 너구리, 고래 등 다양한 동물과 사람, 도구 그림이 그려져 있다.

특히 고래 그림은 귀신고래, 혹등고래, 북방긴수염고래 등 종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탐색, 사냥, 인양, 해체라는 고래사냥의 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암각화이기도 하다.

김기현/기자

정월대보름맞이 신명 나는 부산농악 공연 감상

부산박물관, 2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 개최

부산시 부산박물관은 오는 2월 26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부산박물관 대강당에서 2021년 2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정월대보름맞이 부산농악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부산농악보존회'의 공연으로 아미농악의 대표적인 풍물굿 가락을 모아 사운반 형태로 연주하는 경상도 사물놀이 '아미농악 가락'과 상모를 둘러싸고 여러 형태의 대형을 연출해 시각적 요소를 강조한 '아미 판굿'을 함께 선보인다.

'부산농악'은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불이로 행해지던 중 6·25전쟁 등으로 한때 맥이 끊어졌으나, 1952년 11월 20일 체계적인 농악단이 다시 구성됐다.

이후, 걸림농악이 가미된 연희농악으로 인정받으며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으로 지정됐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2월 19일 오전 9시부터 2월 25일 오후 4시까지 부산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착순 100명으로 관람 인원이 제한되며 공연 당일 잔여 좌석만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관람객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강당 입구에서 발열 확인, 손 소독,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인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다.

송의정 부산박물관장은 “신명 나는 부산농악 공연을 통해 정월대보름날 부산 고유의 흥과 에너지를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개최되는 부산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앤디 워홀' 회고전, 2월 26일 여의도 더현대 서울 알트원에서 개최

팝아트의 황제 앤디 워홀의 대규모 회고전 '앤디 워홀 : 비기닝 서울'이 2월 26일 여의도 더현대 서울 알트원에서 열린다. 전시 기간은 2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다.

이번 회고전은 이탈리아 주요 미술관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전시로, 워홀의 대표 실크스크린 작품과 개인 소장품을 포함한 150여점이 공개된다. '미래를 예견한 예술가' 앤디 워홀의 팝아트 작품에 흠뻑 빠져볼 수 있는 전시다.

“미래에는 모든 사람들이 15분 동안 유명해질 것이다”라는 앤디 워홀의 말은 오늘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현실이 됐다.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이목을 끄는 포스트를 올려 잠시 동안 '좋아요' 세례를 받는 세상이다. 전시는 이 지점에서 시작해 “Be Famous!”라는 슬로건으로 인플루언서로서 앤디 워홀을 상상해보고, 시대를 앞섰던 그의 예술 세계 전반을 둘러본다.

앤디 워홀 하면 떠오르는 강렬한 컬러의 마릴린 먼로, 캠벨 수프 같은 오리지널 대표 작품은 물론, 실크스크린 작업의 바탕이 된 플라로이드 사진 및 최근 재평가되는 후기 작품들을 통해, 예술과 소비 문화의 경계를 철저히 무너트리며 '팝아트' 장르를 새롭게 개척한 워홀의 혁신적인 면을 볼 수 있다.

또 앤디 워홀의 팝아트를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공간인 '팝 가든'도 전시에 포함돼 현대적 모습으로 변신한 워홀의 정취를 느껴볼 수 있다.

전시는 이탈리아 로마 비토리아노 콤플렉스(Complex of the Victorian Ala Brasini), 나폴리 라피스 미술관(LAPIS Museum), 코르티나 담페초



마리오 리몰디 현대미술관(Museum of Modern Art Mario Rimoldi) 등 유명 미술관에서 순회전을 마치고 최초로 한국을 찾은 것이다.

6년여 만에 다시 서울에 상륙한 팝아트의 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내 관객들에게 커다란 볼거리와 기분 좋은 자극을 줄 것이다. 이탈리아 전시 담당자는 “앤디 워홀의 이미 잘 알려진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내성적인 모습까지 잘 보여주는 작품들로 전시회가 구성됐다”며 “한국 관객들이 전시를 통해 예술사의 흐름을 뒤바꾼 앤디 워홀의 진

면목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품과 관련해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는 네이 버 오디오클립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오디오클립은 김찬용 도스토의 목소리로 2월 10일 먼저 공개됐다.

이번 전시는 여의도에 새롭게 개장하는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 내 북향문화공간 ALT.1'의 개관전으로, 현대백화점 카드 및 h.point 회원은 티켓링크나 현장에서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순희/기자

안방에서 즐기는 2월 언택트 문화공연 풍성

하동군, 19·24·26일 유튜브 지금하동TV 생중계...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달래

하동군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의 마음을 달래고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자 안방에서 즐기는 2월 언택트 문화공연을 마련했다.

2월 문화공연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군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삶의 활력 충전을 위해 하동군 공식 유튜브 채널 '지금하동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먼저 19일 오후 7시 르엘 오페라단의 '덴싱 위드 더 오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24일 오후 7시 경성오페라단의 '신데렐라', 마지막 26일 오후 3시 꼬니니꼬 체임버 앙상블의 '뮤지컬과 영화, 클

래식을 만나다'가 선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대면 문화공연이 줄줄이 취소된 가운데 실시되는 이번 언택트 온라인 공연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누구나 집에서 손쉽게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 미디어 공연으로 실시간 생중계 공연이 끝난 뒤에도 다시 볼 수 있도록 유튜브에 게시된다.

최대면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힐링공연으로 군민 여러분 마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파주시 독서동아리 모여라, 집콕하면서 같이 책읽자

파주시는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2021년 파주시 독서공동체 지원사업의 지원동아리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독서공동체의 독서사업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독서를 활성화하고 독서의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 독서공동체 지원 사업은 2020년도에 이어 지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파주시의 장기 독서진흥 정책 중 하나다.

지원자격은 5인 이상의 독서 공동체로 파주시 공공·작은·학교·병영 도서관에서 활동 파주시 지역서점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독서공동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하다.

또, 신청마감일까지 구성된 신규 동아리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체는 파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파주시 도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비는 독서공동체 활동에 소요되는 도서구입비, 감사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홍보/인쇄비, 견학/체험활동비로 1팀 당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가능하며 접수 후 심사

를 거쳐 4월 중 선정될 예정이다.

작년과 달리 직장독서동아리도 신청가능하고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신청 및 지원하며 2개 팀이 늘어난 27개 팀을 지원한다.

최종한 파주시장은 “작년 코로나19로 이웃과의 만남과 소통이 극도로 제한된 힘든 시기에 비대면 독서공동

체 지원 사업을 통해 책으로 공감하고 서로 위로하는 등 공동체로서의 연대감을 회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아직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책 읽은 모임을 통해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특허청, 2021년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사업 개시

분쟁 모니터링, 대응전략 지원 등에 171억원 투입

특허청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작년 말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의 2021년도 해외 지재권 보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술의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대응센터 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을 운영한다.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해,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한다.

다음으로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을 그간 미국 중심의 집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 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글로벌 무역분쟁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재권 분쟁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성용기자

KB국민은행, 환경부와 녹색 채권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16일 환경부와 녹색 채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환경부 장관과 허인 KB국민은행장 등 채권 발행기관과 외부검토회 대표가 참석했다.

참여기관들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녹색 채권 시장의 활성화 △그린뉴딜과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기여 △녹색 채권의 환경개선 효과 제고를 도모한다.

KB국민은행은 채권 발행기관으로서 녹색 채권 발행·자금의 관리·사후보고 등 녹색 금융 실천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1분기 내 1000억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해 풍력·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이번 녹색 채권 활성화 협약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친환경 녹색 금융 확산과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국내 ESG 금융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10월 국내 시중은행 최초 미화 3억불 규모의 지속가능채권 발행했다. 또한 2020년 4월 발행한 미화 5억불 규모의 선 순위 지속가능채권은 국내 최초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목적의 글로벌 공모채권으로 해외 투자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은 기업 활동 전반에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를 적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동반 성장하는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지속해서 실천하고 있다.

전순희기자

삼성전자, 세계 최초 인공지능 HBM-PIM 개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메모리 반도체와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하나로 결합한 HBM-PIM(Processing-in-Memory)을 개발했다.

PIM(Processing-in-Memory)은 메모리 내부에 연산 작업에 필요한 프로세서 기능을 더한 차세대 신개념 융합기술이다. 삼성전자는 PIM 기술을 활용해 슈퍼컴퓨터(HPC)와 AI 등 초고속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 HBM2 Aquabolt에 인공지능 엔진을 탑재한 HBM-PIM을 개발했다. HBM2(High Bandwidth Memory) Aquabolt란 2018년 1월 삼성전자가 양산한 2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를 말한다. AI 시스템에 HBM-PIM을 탑재할 경우 기존 HBM2를 이용한 시스템 대비 성능은 약 2배 이상 높아지고 시스템 에너지는 70% 이상 감소한다.

또한 기존 HBM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지원해 HBM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변경 없이 HBM-PIM을 통해 강력한 AI 가속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AI 가속기인 인공지능을 실행하기 위한 전용 하드웨어를 말한다.

최근 인공지능의 응용 영역이 확대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고성능 메모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해서 커져 왔으나 기존의 메모리로는 폰 노이만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웠다.

폰 노이만 구조는 오늘날 대부분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CPU가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불러오고 실행하며 그 결과를 다시 기억장치에 저장하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CPU와 메모리 간 주고받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작업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이 생긴다.

삼성전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메모리 내부의 각 बैं크에 인공지능 엔진을 장착하고 병렬처리를 극대화해 성능을 높였다. 또한 HBM-PIM

은 메모리 내부에서 연산 처리를 할 수 있어 CPU와 메모리 간 데이터 이동이 줄어들어 AI 가속기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बैं크(Bank)란 주기억장치를 구성할 때의 최소 논리적 단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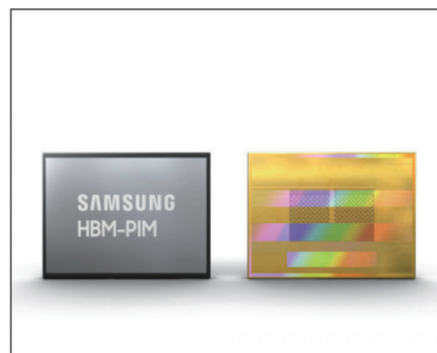
삼성전자는 이러한 혁신기술을 D램 공정에 적용해 HBM-PIM을 제품화하는 데 성공하고 반도체 분야 세계 최고권위 학회인 ISSCC에서 논문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상품기획팀장 박광일 전무는 "HBM-PIM은 AI 가속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업계 최초의 인공지능 맞춤형 PIM 솔루션으로 삼성전자는 고객사들과 지속해서 협력을 강화해 PIM 에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아르곤 국립 연구소 CELS(컴퓨팅·환경 및 생명과학) 연구실장 릭 스티븐스는 "HBM-PIM은 AI 응용을 위한 성능 및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로 HBM-PIM 시스템 평가를 위해 향후에도 삼성전자와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내 다양한 고객사의 AI 가속기에서 HBM-PIM을 탑재해 테스트 검증을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 고객사들과 PIM 플랫폼의 표준화와 에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식기자



지역기업과 청년의 고민, 희망이음 프로젝트로 해결한다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 시상식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7일 오후 2시 지역 우수기업-청년인재 간 인식개선 및 채용연계를 지원하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의 온라인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0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제고 및 인식 개선에 기여한 유공자와 경진대회에 참가한 청년에 대해 시상하고 부문별 우수작에 대한 발표를 통해 동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리지역 청년 희망이음 기업'을 발표했으며 이 중 기업탐방을 통해 지역청년을 채용하는 등 공로를 세운 5개 기업이 장관표창을 수상했고 프로그램 기획·운영을 통해 성과 창출 및 확산에 공헌한 개인 5명도 장관표창을 받았다.

또한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기업의 애로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희망이음 경진대회'부문에는 8팀에게 장관상이 수여됐다.

특히 SMS 팀은 소변 내 나트륨 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저비용·소형화 센서를 개발, 기업의 원가절감에 기여해 기업애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인구수는 감소 중이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증가하는 대구·경북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드 리퍼브 플랫폼 구축을 제안한 그린팔레트 팀은 지역문제해결 부문의 대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우수한 기업탐방 후기로 지역기업에 대한 청년의 관심 제고 및 홍보에 기여한 단체에게 수여하는 '기업탐방 우수 후기'부문에는 10팀이 장관상을 수상했고 제9기 희망이음 서포터즈로 선발되어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서포터즈에게 수여하는 '우수서포터즈'부문에는 단체 5개팀과 2명의 서

포터즈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역기업 애로해결 부문 대상을 수상한 SMS팀의 윤은섭 학생은 "기업, 대학과 협업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보람을 느끼며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지역기업을 심층적으로 알게 되어 취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장관표창을 수상한 경성산업의 이준호 실장은, "당사는 표면 연마제 전문 기업으로서 청년과의 접촉점이 적지만,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청년인재 영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어 기쁘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희망이음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2012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5개 권역별 주관기관이 참여해, 지역기업과 청년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호탐색 및 인식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역안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20년에는 8,607명의 청년들이 기업탐방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12년 사업시작 이래 약 8만 5천명의 청년들이 연간 400여개사에 탐방해,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고 더불어 취업에도 연결되는 성과를 얻고 있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그간 많은 청년들이 지역기업에 취업했고 지역 기업들의 인지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청년들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성용기자

국가 공인 고품질 데이터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선도한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 표준원은 국가가 공인한 고품질 데이터의 개발과 활용을 강화한다.

국표원은 '21년 국가참조표준 데이터 개발 및 보급 사업을 18일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을 통해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했으며 3월 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표원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해 국가사회 전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데이터를 참조표준으로 등록·보급하는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36개 분야별 데이터센터를 지정하고 재료, 물리, 바이오 등

약 5만4천여 건의 참조표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왔다.

그간 개발한 국가참조표준은 국가참조표준센터 웹페이지에서 조회 및 구매할 수 있고 기업들이 데이터를 손쉽게 가공·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등의 데이터 포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축적된 참조표준은 기업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계되어 ㈜제이엘케이인스펙션, KAIST, ㈜스마트채 등과 같은 AI·데이터 기반 선도 기업을 육성하는데 기여해 왔다.

이성용기자



※ 본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와 다릅니다.

'나빌레라' 박인환-송강, '메인 포스터+웹툰ver 특별 포스터' 공개! 눈부신케미X싱크로율!

tvN 새 월화드라마 '나빌레라' 메인 포스터와 원작자 HUN, 지민 작가가 작화한 특별 포스터가 전격 공개됐다. 박인환과 송강의 '발레 사제 듀오' 케미와 '웁텟 싱크로율'이 돋보이는 모습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내달 22일 첫 방송을 앞둔 tvN 새 월화드라마 '나빌레라'(감독 한동화/작가 이은미/제작 스튜디오 드래곤, 더그레이트쇼)는 나이 일흔에 발레를 시작한 '덕출'과 스물셋 꿈 앞에서 방황하는 발레리노 '채록'의 성장을 그린 사제듀오 청춘기록 드라마. 별점 만점과 평점 9.9점의 원작 웹툰 '나빌레라'(HUN, 지민)를 드라마화 한 작품이다.

극 중 박인환은 삶의 끝자락에서 가슴 깊이 담아뒀던 발레의 꿈을 꺼내 든 '덕출' 역을 맡았다. 송강은 뒤늦게 시작한 발레에 남다른 재능을 갖고 있지만 현실 때문에 방황하는 청년 '채록'으로 변신한다. '제자' 박인환과 '스승' 송강이 발레로 하나 되어 로맨스를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 '나빌레라' 측이 18일(목) 박인환과 송강의 '발레 사제' 케미가 돋보이는 메인 포스터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드넓은 하늘 아래 군더더기 없이 유연한 발레 동작을 선보이며 청량함을 뽐내는 송강

과 그런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박인환의 모습이 시선을 강탈한다. 오랜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 박인환과 꿈의 목전에서 방황하는 송강이 그려낼 가슴 따뜻한 브로맨스를 한눈에 그려내는 포스

터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함께 공개된 웹툰 버전 특별 포스터 또한 눈길을 끈다. 원작 웹툰 '나빌레라' HUN, 지민 작가가 드라마 방영 기념으로 직접 웹툰 버전 포스터를 작화한 것. 섬세하고 아름답게 표현된 하늘 아래 두 사람의 따뜻한 분위기가 감탄을 자아낸다. 특히 박인환, 송강과 똑 닮은 웹툰 캐릭터가 시선을 강탈하며 드라마로 구현될 '나빌레라'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킨다.

tvN '나빌레라' 제작진은 "'나빌레라' 방영 기념으로 특별 포스터를 작화해주시는 HUN, 지민 원작자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운을 떼 뒤 "외적 싱크로율 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캐릭터 소화력 또한 200%라 자신한다. 캐릭터와 일체가 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tvN 새 월화드라마 '나빌레라'는 2021년 3월 22일 월요일 밤 9시 첫 방송된다.

전순희기자

'라디오스타' 김범수 X 강다니엘, 본업만큼 예능에 진심인 가수들의 솔직 입담+준비된 개인기 열전! 수요일 밤 '웃음 원픽' 등극!

김범수와 강다니엘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본업만큼 진심인 예능 열정을 불태웠다. 힘들었던 시기를 솔직하게 고백해 응원을 부르고 아무 지게 준비한 개인기를 아낌없이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수요일 밤 웃음 원 픽에 등극했다.

또 김범수는 그레과 함께 히트곡 '보고 싶다'를 '라디오스타' 버전으로 꾸렸다. 소울 풀만한 두 사람의 '보고 싶다' 무대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는 회전문 재성을 부르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기획 강영선 / 연출 강성아)는 '경이로운 방문'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범수, 강다니엘, 양치승, 박영진 그리고 그레이 출연했다. 스페셜 MC로는 선미가 함께했다.

'경이로운 방문' 특집은 각 분야에서 경이로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네 사람의 매력을 백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힘들었던 시기와 흑역사도 솔직하게 공개하는 입담과 마음을 울리는 무대, 치명적인 개인기를 자랑하며 한시도 눈을 땄 수 없는 시간순삭 꿀잼을 안겼다. 또 김범수, 강다니엘, 양치승, 박영진은 확실한 캐릭터와 저마다 개인기를 아무지게 준비해 온 예능 욕심을 바탕으로 티키타카를 뽐내며 케미를 자랑했다.

스페셜 MC로 출격한 선미는 김범수와 댄스 무대는 물론, 상큼 발랄한 매력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범수는 데뷔 20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급성 후두염을 진단받은 사실을 고백했다. 결국 당일엔 콘서트를 취소했다는 김범수는 그 후 무대 공포증이 찾아왔고, 결국 지난해 안식년을 보내며 목과 마음의 건강을 샅샅이 털어냈다.

셀프 디스 토크와 반전 개인기, 천상계 무대로 눈부신 존재감을 발산했다. 김범수는 한때 자신감이 충만했다며 "발라드 뮤직비디오에 상반신 탈의한 모습으로 출연했다. 이후 김종국을 만났는데 '너무 재밌었다'며 박장대소하더라"며 자아도취병이 완치된 계기를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김범수는 히트곡 '보고 싶다' 모창자인 그레과 회전문 재성을 부르는 레전드 듀엣 무대를 완성했다. 김범수는 국내 최고 보컬리스트 클래스를 자랑하며 그레표 '보고 싶다'를 모창해 감탄을 자아냈고, 알앤비 소울머신 그레은 모든 음을 소울 가득하게 꾸미는 특유의 창법으로 귀 호강 무대를 만들었다. 이후 스튜디오에 함께 한 그레은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

와'를 알앤비 버전으로 소화하며 감탄을 유발했다.

강다니엘은 솔직 토크와 개인기 부자의 전 매력으로 안방 팬들의 심장을 저격했다. 특히 은퇴까지 고려할 정도로 지치고 힘들었을 때 다른 가수들의 음악과 무대를 보고 '나도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이 들며 열정을 다시 불태웠다고 털어놓아 많은 이들의 응원을 불렀다.

강다니엘은 힘들었을 때 자신을 웃게 해준 짝 웃음 버튼 주인공으로 황제성을 언급하며 "제가 너무 팬이다. 힘든 시기에도 그분이 나오는 프로를 많이 봤다"고 팬심을 고백했다. 이어 열혈팬답게 "반갑시봉!"이라고 외치며 '황제성표' 개가를 능청스럽게 선보여 대목소를 자아냈고 양치승의 '웃음 원픽' 등극도 몰구나무서기, 춤신춤왕 신곡 댄스 무대 등 입이 썩 벌어지는 개인기를 대방출, 심쿵 유발자의 면모를 뽐냈다.

양치승은 예능에 큰 관심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허당담 넘치는 반전 예능감과 능청 만렙 입담으로 웃음 활약을 펼쳤다. 양치승은 "내가 줄리엔강보다 힘이 세다"며 김구라를 등에 업고 푸시업을 가법해 해보겠다고 허세를 떨었지만 두 번 만에 풀썩 쓰러져버리는 반전미로 폭소를 자아냈다. 또한 연기자로서의 꿈을 꾸기도 했다는 그는 "보통 트레이너 역할만 들어온다"며 같이 연기하고 싶은 배우로 눈만 부릅떠도 역대급 싱크로율을 보이는 김민교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영진은 '예능 사이가이'의 반전미로 웃음을 책임졌다. 박영진은 리얼한 연기 때문에 진짜 키패드로 애를 받기도 했다며 "주자 정산소에서 '인생 그렇게 살지 세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키패드 전문 개그맨의 고충을 털어냈다.

또 박영진은 키패드 표정을 리얼해서 자신도 놀랄 때가 있다며 '땀상 폭발' 키패드 표정을 재현, 웃음을 유발했다. 또한 카메라와 내외할 만큼 내성적이라는 박영진은 게스트들의 토크에 절묘하게 추임새를 넣는 찰진 토크 피처링 활약과 열정 폭발 개인기로 '예능 우량주'의 매력을 뽐냈다.

다음 주에는 오은영, 송창의, 김지혜, 이지혜가 출연하는 '창의적인 육아의 지혜' 특집이 예고됐다. 한편, '라디오스타'는 MC들이 어디로 될지 모르는 총천성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 시켜 진짜 이야기를 꼬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소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전순희기자

배우 이레, KBS '안녕? 나야'에서 17반하니로 시간순삭 호연 '틴파워' 내공폭발

배우 이레, 첫방 '안녕? 나야'에서 '내공가득' 열연으로 찐 하드캐리 '총무로 보석' 다운 활약



배우 이레가 드라마에서 탄탄한 호연을 선보이며 '연기 천재'임을 입증했다. 이레는 17일 첫 방송된 KBS 2TV 새 수목드라마 '안녕? 나야'에서 17세 반하니 캐릭터에 흠뻑 녹아드는 '찐 하드캐리' 열연을 펼치며 직포 화제의 중심에 섰다. 이날 방송에서 이레가 연기한 17세 반하니는 예쁜 외모와 넘치는

끼를 보유한 교내 핵인싸이자 키큰 역할로 첫 등장했다. 37세의 반하니가 사고의 위협에 처하려는 순간 극 화면이 바뀌며 20년 전 그녀가 다닌 호수고등학교 옥상이 나타났다. 교내 옥상에서는 '영과워 가슴을 펼쳐라'는 프로그램 녹화 중으로 남학생들은 17세 반하니에게 서로 고백하려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정작 고백 주인공인 17세 반하니는 1학년 3반 교실에 있었고 피날레를 장식하고자 시큰둥한 자세를 취했다.

이어 단상에 올라선 17세 반하니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한껏 귀여운 척하며 자신이라고 폄했다. 그녀는 "이름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반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매력의 소유자 반하니 사랑해 넌 정말 캡이야"며 엄지 척 자세를 취했다.

17세 반하니는 높은 자존감을 지닌 교내 퀸카인 모습과 달리 집에서 철부지 막내딸이었다. 엄마의 대과 심부름을 하면서도 먹고 싶은 과자를 사먹는 대범함도 보였고 마침 택시운전을 하는 아빠를 발견했다. 17세 반하니는 무언가 비밀을 감추면서 아빠에게 무작정 약속하며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 말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했다. 그 비밀은 바로 가수를 향한 꿈이었다.

다음 날, 폐병으로 조퇴한 17세 반하니는 걸그룹 오디션 장으로 향했고 무대를 즐기며 노래하고 춤췄다. 심사위원들의 이목을 집중 받는 것도 잠시, 부모님이 나타나 끌려나왔다. 비 내리는 도로에서 차 문을 열고

뛰쳐나가다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트럭을 보고 놀라 움직이지 못했다. 다시 화면이 전환되고 응급실을 배경으로 부모님의 이름도 핸드폰 번호도 같았던 17세 반하니와 37세 반하니가 우연히 옛 병상에 같이 있는 모습으로 조우해 충격적인 첫 만남을 가졌다. 10대 시절 빛나던 반하니는 현실에 지쳐 주굴한 자태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 극 말미 에필로그에서도 20년 후의 자신에게 편지 쓰는 반하니의 모습은 멋지고 당당할 것이라 예상했기에, 이들이 앞으로 어떤 놀라움과 시련을 겪을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처럼 첫 방송을 통해 이레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났다. 이레가 이 작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방송 전부터 기대가 모아졌던 상황. 이레는 비주얼부터 17세 반하니 캐릭터 그 자체였으며 극중 인물이 처한 복잡미묘한 감정선을 섬세하게 표현하며 그간 다수의 영화, 드라마를 통해 단단히 쌓아온 연기내공을 시원하게 터트렸다.

막연히 극의 마스크트인 10대 철부지 캐릭터가 아닌, 극을 이끌어가는 핵심 키 역할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최재은기자

최재은기자

'안녕? 나야!' 최강희X이레, 짠하고 짱했다! 20년 사이에 둔극과극 인생 웃기고 짠해!

짠하고 짱한 두 하나의 인생이 유쾌하게 한 회를 장식했다.

17일 첫 방송된 KBS 2TV 수목드라마(극본 유승우/ 연출 이현석/ 제작 비온드레이,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안녕? 나야!'가 20년을 사이에 두고 극과 극으로 갈린 인생 항로를 걷는 17살 하니와 37살 하니의 모습을 대비시키며 파스한 웃음과 몽클한 감성으로 가득한 여정에 포문을 열었다.

이 같은 전개에 힘입어 이날 '안녕? 나야!'는 닐슨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4.9%를 기록하며 인상적인 신고식을 치렀다.

이날 방송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37살 쓰디 쓴 인생을 살고 있는 하니의 궁색한 현실이었다. 조아제과 판촉담당 계약직원으로 일하며 오징어 탈을 쓰고 시식행사에 나선 하니는 아이가 몰래 집어먹은 과자 한 움큼으로 하고 위기에 몰리다 못해 온라인에선 풀팔매질을 당했고, 연예인 안소니(음문석 분)를 향해 약화를 썼다는 억울한 혐의로 긴급체포 당해 유치장에 갇히는 등 불운의 연속을 겪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가족 또한 하니를 몰아세우기 마친가지였다. 친언니의 병원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주

아들이 나오기로 한 선자리는 친언니의 강권에 의해 만들어진 맞선이었고, 이곳에 나온 맞선남은 하니의 조아제과 계약직 신분과 함께 자신을 얼마만큼 모았는지 질문을 퍼붓는 17살 하니와 37살 하니의 모습은 만행까지 저지르고 말았다.

이쯤되면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대형 트럭을 피하지 않는 하니의 행동도 무리는 아니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돌진하는 트럭을 피하지 않는 하니의 선택 속엔 20년 전 17살 시절의 호수와 퀸카였던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고, 이 모습은 37살 하니와는 극과 극으로 다른 모두에게 환대받는 모습으로 대비를 이뤄 이목을 집중시켰다.

무엇보다 눈길을 끈 건 하니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였다. 호수고 최고의 퀸카로 전국으로 송출되는 방송에서 전교생의 사랑을 받는 학생임이 입증되었지만, 이에 화답하는 대신 하니는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로 자기 스스로를 지목하며 우주 최고의 자존감을 지닌 것은 물론 짱짱한 자신감으로 싱그러운 10대 시절을 보내는 아이였고, 이는 현재 마치 못해 살아가는 듯한 37살 하니와는 완벽히 다른 모습이



기에 더욱 대비됐다. 트럭 사고로 죽음의 위기에 가까이 간 상황에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을 떠올리는 하니의 짠한 마음 상태와, 이와 반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17살 시절의 하니가 강한 대비를 이룬 상황에서 두 사람이 현재 병원 응급실에서 맞닥뜨린 장면은 이

둘의 만남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닌 건지 다음회에 벌어질 사건들에 대한 궁금증을 최고치를 끌어올린 최고의 엔딩이기도 했다. 빛나는 꿈도 설레는 미래도 없는 37살 하니에게,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최고로 재수 없기도 한 17살 시절 과거의 나와의 만남은 하니 인생에 역대급

사건이 일어났음을 암시하며 두 하나의 연합에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골드스폰 유현(김영광 분)의 철학사니 없는 만행 퍼레이드는 깨알 같은 웃음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이제껏 돈을 쓰는 삶에만 익숙해 80여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유현은 아버지 한희정(윤주상 분)의 엄포에 1주일에 100만 원을 벌어들여 줄 것을 장담했지만 턱도 없는 현실의 벽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위기를 느끼지는커녕 바리바리 오후를 받고 유치장에 갇히는 굴욕적인 사건으로 앞으로 그에게 펼쳐질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예고했다. 그런 중에 빈대불기로 시작된 하니와의 만남은 둘 사이에 벌어질 성장 서사와 함께 핑크빛 로맨스 또한 예감케 하는 대목이었다.

톱스타 안소니의 유당불내증으로 인한 화질상 사연과 하니와의 인연 또한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지금이나 과거나 우유만 먹으면 화장실로 직행하는 소년의 숨기고 싶은 비밀과, 고등학교 시절 하니를 짝사랑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악플러와 연예까지 만나게 된 정반대의 악연까지 코믹한 장면들로 짠

스토리는 웃음을 책임지기에 충분했다.

이렇듯 판타지, 성장,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매력을 모두 갖춘 한 회를 완성한 '안녕? 나야!'는 앞으로도 짝찬 풀패키지 장르 매력을 펼치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여정을 완성해 나가게 된다.

시청률 4.9%(닐슨 코리아 전국 가구 기준)를 기록하며 산뜻한 출발을 한 '안녕? 나야!'에 대해 시청자들은 "분위기 산뜻하면서 제대로 힐링 받게 되네요", "간만에 대박 재미!", "옛날의 김수성과 요즘의 이야기가 섞여 너무 재미있게됐네요", "배우들 각자의 캐릭터에 진심이느

껴짐", "추억돋게 만드네 내일도 봐야지" 등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며 다음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편, '안녕? 나야!'는 연애도 일도 꿈도 모두 뜻뜻미지근해진 37살의 주인공 반하니에게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고 모든 일에 뜨거웠던 17살의 내가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는 판타지 성장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30분 방송된다. 정동희기자

정동희기자